

# 한국의 누정과 누정문화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의 누정과 누정문화	1-1	누정의 개념과 한국 누정의 역사
		1-2	누정의 기능과 누정문화
		1-3	관동팔경과 강원 누정
		1-4	호남의 누정 개관
		1-5	경상도 누정의 조감
2	강원의 누정1 - 관동팔경과 경포대	2-1	경포대의 어제와 오늘
		2-2	경포대의 주요 시와 그림
		2-3	성리학적 산수 감상에 따른 경포대의 명승 가치
		2-4	경포대와 율곡 이이
		2-5	경포대 주변 호해정의 역사와 문화
3	강원의 누정2 - 관동제일루 죽서루	3-1	죽서루의 어제와 오늘
		3-2	죽서루의 건축미학
		3-3	죽서루 현판
		3-4	죽서루의 주요 시문과 그림
		3-5	죽서루 팔경시
4	강원의 누정3 - 요산요수의 정자, 소양정	4-1	소양정의 어제와 오늘
		4-2	조선시대 소양정의 명승 가치
		4-3	춘천의 소양정과 매월당 김시습
		4-4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
		4-5	춘천의 소양정과 다산 정약용
5	호남의 누정1 - <춘향전>의 무대, 광한루	5-1	광한루의 어제와 오늘
		5-2	조선시대 우주관과 광한루원의 명칭
		5-3	광한루의 편액 시문
		5-4	광한루와 <춘향전>
		5-5	광한루와 남원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호남의 누정2 - 우리나라 민간원림의 원형, 소쇄원	6-1	소쇄원의 어제와 오늘
		6-2	소쇄원과 양산보
		6-3	소쇄원과 가사문학
		6-4	소쇄원과 소쇄원사십팔영
		6-5	소쇄원 주변의 정자들
7	호남의 누정3 - 자연과 인공의 어울림, 부용동원림	7-1	부용동원림의 어제와 오늘
		7-2	부용동원림과 윤선도
		7-3	부용동원림과 세연정
		7-4	부용동원림을 통해 본 한국의 정원문화
		7-5	부용동원림과 어부사시사
8	경북의 누정 - 누정의 진(眞), 경북의 누정들	8-1	청암정의 어제와 오늘
		8-2	초간정의 어제와 오늘
		8-3	만대루의 어제와 오늘
		8-4	계정의 어제와 오늘
9	경남의 누정1 - 누정의 미(美), 영남루	9-1	영남루와 축석루, 그리고 영남루의 개략
		9-2	영남루의 어제와 오늘
		9-3	영남루의 인물과 작품
		9-4	영남루에 깃든 전설
10	경남의 누정2 - 누정의 선(善), 축석루	10-1	축석루의 개략
		10-2	축석루의 어제와 오늘
		10-3	축석루의 인물과 작품
		10-4	축석루 주변 장소에 깃든 의미

## 강좌 개요

###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각은 높다랗게 지은 다락 형태의 건축물로 사방을 조망할 수 있게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형태이다. 정자는 대개 단층으로 규모가 작는데, 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 방처럼 만든 것도 있다.

한국의 누정은 관련 기록이 삼국시대부터 보이며, 조선시대 누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대부들의 은거 문화와 관련이 깊다. 은거한 사대부들은 학문을 도야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누정을 지어 산수를 감상하고 풍류를 즐겼다. 누정은 대부분 산이나 강, 호수 등을 끼고 있으며 주변을 자연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세워졌다. 사대부문인들은 누정에서 시회(詩會)를 여는 등 누정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누정제영(樓亭題詠)과 누정기(樓亭記)와 같은 문학 작품도 많이 창작되었다.

이에 한국의 주요 누정의 역사와 문화를 강원도·전라도·경상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누정과 관련된 한국의 고전문학 작가와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어 한국문학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 강좌의 학습 목표

- 경포대, 죽서루, 광한루, 영남루 등 한국의 주요 누정, 그리고 누정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주요 누정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기대효과

한국의 주요 누정을 지역별로 살펴본 후 누정기를 통해 누정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하나의 분석틀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 1주차

## 한국의 누정과 누정문화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누정의 개념과 한국 누정의 역사
2차시	누정의 기능과 누정 문화
3차시	관동팔경과 강원도의 누정
4차시	호남의 누정개관
5차시	경상도 누정의 조감

---

## 1차시 누정의 개념과 한국 누정의 역사

---

### 학습 목표

---

- 누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한국 누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누정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보까요? 아무래도 우리 중에는 안 세헌 선생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시니까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정에는 누(樓)와 정(亭) 2개의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 누각과 정자를 가리킵니다. 곧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아울러 이르는 용어입니다.

그럼 누각과 정자는 어떻게 다르죠?

누각은 높다랗게 지은 다락 형태의 건물인데요.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형태입니다. 누각은 대체로 2층 이상의 건물로 규모가 큼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를 들 수 있습니다. 마룻바닥이 땅에서 한층 높게 위로 떠 있으며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누각이라고 합니다. 대개 누각은 관청에서 건축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가 올 때 일종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정자는 어떤가요?

일단 정자는 단층으로 규모가 누각에 비해 작습니다. 정자는 규모가 몇 칸 되지 않고 지붕이 초가 형태인 것도 있어요. 정자도 누각과 마찬가지로 사방이 개방된 형태가 많긴 한데요. 그중에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 방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설치해서 추운 겨울에도 지낼 수 있도록 했고요. 강원도 강릉의 해운정이나 전라도 담양의 식영정 같은 정자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자는 관청에서 공적으로 지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적으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건축한 주체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누각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관청에서 공공건물로 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인문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누정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곳을 보면 누와 정뿐만 아니라 대, 각, 당, 헌, 재까지도 모두 누각(누정)에 포함을 시켜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름에 무슨 무슨 대, 각, 당, 헌, 재 같은 말이 들어있다면 누정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누정 말고도 누원이라든가 원림이라든가 하는 명칭도 있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누원은 누정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요. 하나의 누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건축물 그리고 조경을 더한 일종의 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라북도 남원의 광한루원을 들 수 있는데요. 광한루라고 하는 대표적인 누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인공으로 만든 호수, 다리, 건축물 등을 더한 큰 정원을 조성한 곳입니다. 누정 하나가 가지는 아름다움보다는 누정을 중심으로 누정을 둘러싼 경관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누정이라 부르지 않고 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원림은 무엇인가요?

원림도 누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명칭에 수풀 림(林) 자가 들어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누정을 둘러싼 자연 환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라남도 보길도에는 윤선도가 만든 큰 정원이 있는데요. 윤선도 ‘누원’이라 부르지 않고 윤선도 ‘원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원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누정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한국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오래 되어 보이는 누정도 있고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누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역사서라든지 문집에 누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누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488년에 신라 소지왕이 천천정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는데요. 500년에 백제 동성왕이 궁궐의 동쪽에 임류각을 짓고 이곳에서 연회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36년에 백제의 무왕이 망해루에서 여러 신하

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는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누정이 만들어졌고 국가의 공식적인 잔치,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누정을 만들고 관리했던 것이죠.

누정의 역사가 삼국 시대에서부터 시작됐다면 당연히 고려 시대에는 더 많은 누정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고려 시대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든 누정도 등장하기 시작하나요?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왕실과 지방의 관청에서 공적으로 만든 누정이 많습니다. 고려사에는 왕실의 누정에 관한 기록이 많은데요. 1073년에 문종이 평리역에 정자를 지었고 1106년에 예종이 가창루에서 신하들과 함께 시를 짓고 활쏘기를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1157년에 의종이 궁궐 주변 민가 50여 채를 허물고서 태평정이라는 누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고려 때 지방의 관청에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객관에 만든 누정도 많죠. 강원도 삼척의 죽서루라든가 경상도 밀양의 영남루가 대표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정자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문을 모아놓은 <<동문선>>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려 시대 문인들의 개인 문집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인 목은 이색에게는 김직지라는 벗이 있었어요. 김직지는 자기 집에다 육익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누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 후기에는 문인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누정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래 왕실이나 관청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누정을 만들었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손으로 누정을 만드는 경우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조선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누정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사대부들이 개인적으로 세운 누정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혹시 믿을 만한 문헌 기록이 있을까요?

그럼요. 조선 초인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의 지리지의 지리지 보면 조선 초기에 전



국적으로 누정이 5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쯤 지난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전국에 800여 개가 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18세기 중반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 조선 후기의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를 보면 1천여 개가 넘는 누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말 편찬된 <<읍지>>에는 전국의 누정이 1,883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누정이 급격히 많아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처관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대부라는 말은 사(士)와 대부(大夫)가 합쳐진 용어인데요. 벼슬에 나가서 정치를 하면 대부, 벼슬에서 물러나 독서를 하고 있으면 사라고 했었죠.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부가 크게 상관 없이 없었을 텐데요. 고향에 머물거나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을 즐기면서 공부할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낙향해서 은거하는 분들이 그냥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학문을 공부한다든가 주변에 사는 제자들을 모아서 양성한다든가 이런 학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지어 놓고 자연을 감상하거나 풍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도 경주에 있는 독락당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전라도 담양의 면양정도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독락당의 계정과 면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독락당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언적이라는 사람이 마흔 살 때 중앙의 관직인 사간원 사간으로 있다가 이때 국정을 농단하는 김안로를 보고 그의 등용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언적은 관직에서 쫓겨나 고향인 경상도 경주로 내려와서 독락당이라는 누정을 짓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독락이란 이름에는 홀로 즐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번잡한 정치사, 세상일은 끊어버리고 성현의 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치를 깨우치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533년에 잠시 중앙의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담양에서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이곳에서 학문도 토론하고 시와 술을 즐기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백진우 교수님 : 16세기 이후로 사대부 문인들이 중앙의 관직에서 물러나 지방 고향에 은거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세운 정자가 급격히 증가한 셈이겠군요. 이런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즐기기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가기기도 하고 또는 시를 짓는 모임을 열어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

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누정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겠군요.

오늘 누정의 개념과 종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누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합친 용어입니다. 누각은 높다랗게 지은 다락 형태의 건축물로 사방을 조망할 수 있게 문이나 벽이 없이 개방된 형태로 지었습니다. 정자는 단층이고요. 누각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방처럼 만든 것도 있고, 그곳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누정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삼국시대에는 주로 왕실이 주도를 해서 누정을 세웠고 공식적인 행사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와 비슷한 상황이었구요 고려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 문인들이 개인적으로 조성한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에서 물러난 사대부 문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자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누정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누정에서는 산수를 감상하기도 하고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시회를 열고 풍류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누정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누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누정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참고문헌】

- 우응순, 『누정-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안세현 외, 『강원의 누정문화』, 강원도, 2021.

## 2차시 누정의 기능과 누정 문화

### 학습 목표

- 한국 누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의 누정 문화와 누정 문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정의 기능과 한국의 누정 문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요. 누각과 정자는 본래 공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세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정은 본래 성의 망루와 역참의 정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누각은 성 위에 높게 지어서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살피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자는 역참의 부속 건물로서 여행객의 휴식처로 사용을 했었죠.

누와 정의 한자를 보더라도 그러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는 높은 건물을 뜻하니 까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은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잠시 멈춰 쉬어 가는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후대로 오면 누정은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누각은 규모가 크고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정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누각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유흥을 즐기거나 시회, 그러니까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이런 모임이죠. 시회를 즐기는 격식을 갖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정자는 여행자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화 공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누정은 경치가 좋은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정은 대부분 아름다운 산과 강을 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가보시면 소양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뒤는 봉의산이라는 산이 우뚝하게 솟아 있고요. 앞으로는 소양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서 ‘요산요수’가 적합한 곳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소양정을 이요루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춘천으로 여행 온 사람들은 대부분 소양정에 올라서 산수를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했던 것이죠.

요산요수는 산과 물을 즐긴다는 뜻이죠. 본래 공자께서 한 말인데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러니까 어진 사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면서 자연물에 담긴 이치나 원리 그리고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정의 첫 번째 기능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 말고 술과 시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문인들은 누정에 모여서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시를 짓기 위해 모이는 모임을 시회라고 합니다. 이름난 누정을 중심으로는 역시 명성이 있는 시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금란정이란 정자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금란반월회’라는 시회가 주기적으로 열렸습니다. ‘금란반월회’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466년에 처음 결성이 되었고요.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까지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금란정이란 정자의 이름은 ‘금란지교’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회 회원들이 돈독한 우의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시회의 회원들은 금란정에 모여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면서 우의를 다졌던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아름다운 누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얘기되는 전라도 담양 지역에서 보이는데요. 16세기에 식영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문인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들을 두고서 ‘식영정 시단’이라고 불렀던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정에서 자연을 감상하고 시와 술을 즐기는, 주로 노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누정에서 선조들이 놀기만 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누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는 학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누정 가운데에는 사방이 환하게 뚫려있는 곳뿐만 아니라 벽도 세우

고 문을 달아서 마치 자신의 거처 혹은 서재처럼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지인들이나 제자들 혹은 벗들과 함께 학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는 게 좋지만 학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누정 중에는 경상도 안동의 만대루처럼 서원에 지어진 것도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서원은 교육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만대루처럼 서원에 있는 누정에서는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교육하고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정은 종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보자면 문학 작품의 창작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누정제영 그리고 누정기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누정 항목에 ‘누정제영’과 함께 ‘누정기’도 두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겠죠.

맞습니다. 누정에 올라서 자연을 감상하고 지인들, 그러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풍류를 즐길 때 누정을 소재로 시를 많이 지었는데요. 이것을 ‘누정제영’이라고 했습니다. 시는 대개 차운의 형식으로 지었어요. 차운은 남이 지은 시의 운을 따라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시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시의 운자를 활용해서 돌아가면서 시를 짓는 방식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시첩, 그러니까 시집을 만들기도 하고 지은 시들을 나무판에 써서 그리고 새기고 해서 누정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누정에 걸려 있는 시를 보고 이어서 계속 차운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경관이 빼어난 누정일수록 바로 누정제영도 그만큼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경상도 진주의 축석루 관련 누정제영은 고려 후기부터 근대까지 1천 수 넘게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정제영 중에는 팔경시와 사시사처럼 독특한 형식으로 창작한 것도 있습니다. 팔경시는 아름다운 경치에 8가지 제목을 붙여서 8수로 지은 연작시를 말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보시면 죽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이 죽서루 팔경시는 고려시대부터 창작되었고요. 현재도 여러 편 전하고 있습니다. 사시사는 누정 주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을 4수로 지은 연작시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빙허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이 빙허루에 붙인 사시사가 또 여러 편 창작돼서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정제영과 관련해서는 차운시, 팔경시, 사시사를 좀 함께 알아두고 있어야겠군요. 또 한 가지로 산문 작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

정에 관해서 지은 산문 작품을 누정기라고 하잖아요. 이 누정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누정기는 누정에 붙인 기문이란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누정을 짓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누정 주변의 산수와 경물, 풍경을 묘사하고 누정의 명칭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누정기를 통해서 누정의 위치, 창건과 중수의 과정, 그러니까 처음 지어지고 수리한 과정 그리고 누정의 건립 목적, 누정의 이름에 담긴 의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누정의 경우에는 중간에 여러 차례 수리를 더 하기도 하고요. 혹은 완전히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짓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누정기를 짓곤 했는지요?

맞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부평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평각이라는 누각은 1695년에 이명한이라는 관리가 처음 창건을 했어요. 현재 1695년에 오도일이라는 문인이 지은 누정기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도 1734년에 이우신이라는 분이 누정기를 지었고요. 1771년에 서명선, 1811년에 홍석주가 지은 누정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부평각은 허물어져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이 여러 분들이 지은 누정기를 통해서 부평각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무너졌으며 중간에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정은 누정제영시 그리고 누정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고 명승지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정의 기능 그리고 누정 문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정은 기본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지어졌고요. 첫 번째 기능은 자연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 문인들이 모여서 시와 술을 즐기는 풍류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토론하는 교육과 연구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누정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정은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었는데요. 누정제영과 누정기 같은 문학 작품의 창작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누정제영은 누정을 소재로 지은 시인데요. 누정에 오른 사람들은 누정에 걸려 있는 선인들의 시를 보고 차운시 형식으로 짓곤 했습니다. 누정기는 누정에 붙인 기문인데요. 누정의 건립 배경과 과정을 기록하고 누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며 누정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서술했습니다. 누정

제영과 누정기를 통해 누정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누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보았으며 한국 누정 문화와 누정 시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문헌】

- 우응순, 『누정-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안세현 외, 『강원의 누정문화』, 강원도, 2021.

## 3차시 관동팔경과 강원도의 누정

### 학습 목표

- 관동팔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원도의 누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학자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입니다.

관동은 강원도를 가리키며 팔경은 여덟 곳의 빼어난 경치를 뜻합니다. 이중환은 관동팔경으로 대표되는 강원도의 명승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강원도에는 누대와 정자 등 빼어난 경치가 많다. 흡곡의 시중대, 통천의 총석정, 고성외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양양의 청초호,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을 사람들이 관동팔경이라 부른다. 영동지방 아홉 고을의 서쪽에는 금강산, 설악산, 두타산, 태백산 등이 있으니 산과 바다 사이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많다.”

이중환은 강원도가 산과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서쪽을 영서지방, 동쪽을 영동지방이라 합니다. 영동지방은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우뚝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금강산, 설악산, 두타산, 태백산 등은 태백산맥을 이루는 주요 산들입니다. 관동팔경은 영동지방, 곧 태백산맥과 동해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관동팔경을 보면 흡곡의 시중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울진의 망양정 등 대부분이 누대와 정자입니다. 강원도의 명승지에서 누정이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환은 흡곡의 시중대와 양양의 청초호를 관동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동팔경에는 시중대 대신 평해의 월송정을, 청초호 대신 양양의 낙산사를 넣습니다. 울진의 망양정과 평해의 월송정은 현재 행정구역 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울진과 평해는 강원도에 속한 고을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통천의 총석정부터 평해의 월송정까지 관동팔경의 대부분이 누정이며 모두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문인 이곡이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동유기〉라는 기행문을 지으면서 관동팔경은 사대부 문인들의 강원도 유람 코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조선전기의 문인 홍인우는 1553년에 금강산과 강원도를 유람하고 〈관동일록〉이라는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관동일록〉에는 강원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의 날씨와 여정, 에피소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이 관동팔경을 여행하면서 한문으로 시를 쓰고 기행문을 짓는 등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대부 문인들 역시 주로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계 이황은 한글로 시조를 짓기도 했고요. 송강 정철은 한글로 가사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한문은 한국어와 언어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한문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관동팔경과 관련하여 한글로 지은 문학 작품 중에는 조선 선조 때의 문인 송강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이 가장 유명합니다. 〈관동별곡〉은 1580년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지은 가사 작품입니다. 정철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느낀 것을 〈관동별곡〉에 표현하였습니다. 이 〈관동팔경〉은 조선시대에 노래로도 불려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관동팔경〉은 조선시대에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그림의 소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유명한 화가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표암 강세황은 금강산과 관동팔경 일대를 직접 유람하고 그림첩을 남겼습니다. 겸재 정선은 〈관동명승첩〉을 남겼고요. 단원 김홍도는 〈금강사군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강세황은 〈풍악장유첩〉이라는 그림첩을 남겼습니다.

보시는 것은 정선의 〈관동명승첩〉 중에서 삼척의 죽서루를 그린 것입니다. 우뚝 솟은 바위 절벽 위에 세워진 죽서루의 모습이 웅장합니다. 특히 관동팔경은 여덟 곳의 명승지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8폭 병풍으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관동팔경의 명승지 한 곳씩, 한 폭에 그려 넣어서 모두 여덟 폭을 만든 것입니다. 관동팔경을 직접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림첩이나 8폭 병풍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관동팔경의 뛰어난 경치를 감상하였던 것입니다.

관동팔경에 들어 있는 강원도의 누정은 모두 영동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영서지방에도 역사가 오래되고 멋있는 누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유명한 누정을 몇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소양정, 원주의 부평각, 홍천의 범파정, 인제의 합강정, 영월의 빙허루와 금강정, 철원의 고

석정 이런 누정들을 영서 지방의 대표적 누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고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등 영동지방의 누정들은 서쪽에는 태백산맥, 동쪽에는 동해바다  
가 있었죠. 곧 영동지방의 누정은 산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시다.

영서지방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강이 있죠. 그래서 영서지방의 누정은 뒤  
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산과 강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강원도에는  
얼마나 많은 누정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를 통해 강원도에 있었던 누정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는 각각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지리지입니다. <<관동지>>는 조선후기 강원  
도를 대상으로 한 지리지이고요. 이들 3종의 지리지에는 조선시대 강원도 26개  
고을별로 각 고을에 있는 누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지>>는 일제강점  
기인 1941년에 간행된 것인데요.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리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원도지>>는 조선시대의 지리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조선시대 강  
원도 누정의 대략적인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지는 강원도를 26개 고을로 구분하고 각 고을별로 누정을 기록  
하는 체제입니다. 다만 <<강원도지>>는 누정을 상위 항목에 두고요. 강원도 모  
든 고을의 누정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곧 <<강원도지>>의  
누정 항목을 보면 춘천의 소양정을 시작으로 해서 강원도 26개의 고을의 누정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도의 누정 현황  
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울진과 평해는 현재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  
진과 평해는 조선시대에 강원도에 속해 있었던 고을이고요. 경상북도로 소속이  
바뀐 것은 1960년, 최근의 일입니다. 따라서 울진과 평해 역시 강원도의 누정에  
포함시켜서 통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강원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강원도 누정은 모두 235개입니다. <<강원도  
지>>가 간행되었던 1941년 당대까지 남아 있던 누정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미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었던 누정도 <<강원도지>>에 기록되어 있습  
니다.

강릉, 삼척, 양양, 고성, 울진 등 영동지방의 누정이 140여 개로 전체의 60%  
정도 됩니다. 26개 고을 중 영동지방의 고을이 9개밖에 되지 않지만 누정은 영서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조선전기의 문인 서거정이 지은 〈관동행〉이란 시의 일부입니다. 제목 〈관동행〉은 관동지방 노래 정도의 뜻인데요. 관동지방은 강원도를 가리킵니다. 지인이 강원도사로 부임할 때 전송하는 뜻에서 지어 준 시입니다. 서거정은 〈관동행〉이란 시에서 “관동지방 빼어난 경치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곳이라. 그곳에서 풍류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유선이었지”라고 읊었습니다. 서거정이 말하였듯이 강원도의 명승을 유람한다는 것은 유선, 곧 유학자가 신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의 누정을 비롯해서 명승지를 유람한다는 것은 번잡한 세상사를 잠시 잊고 신선 세계에 들어간 것과 같은 자유와 휴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홍인우가 지은 〈관동일록〉의 일부입니다.

“모래는 하얗고 바다는 푸르려서 맑은 흥취를 거두어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홀연히 말에서 내려 모래사장 위로 몸을 던졌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혹 나를 두고 미친놈이라 하였을 것이다.”

홍인우는 강릉의 경포대로 가는 길에 동해의 백사장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홍인우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얀 모래사장에 몸을 던져 흥취를 만끽하였습니다. 홍인우와 같은 점잖은 학자에게도 강원도는 체통과 세속적 규범을 내려놓고 맘껏 자유와 흥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강원도에는 누정이 많습니다. 강원도의 많은 누정 중에서 저와 함께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춘천의 소양정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세 누정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면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복잡한 세상일은 잠시 잊고 신선이 된 것과 같은 자유와 흥취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문헌】

- 『경포대』, 국립춘천박물관, 2012.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 4차시 호남의 누정 개관

### 학습 목표

- 호남 누정의 개략을 설명할 수 있다.
- 호남 누정의 특징적인 면모를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호남 지역의 누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이라는 말은 호수의 남쪽을 뜻하는데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경유하여 2개의 도를 경계로 흐르는 큰 강,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강을 큰 호수로 비유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행정 구역으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호남 지역은 예로부터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흔치 않게 드넓은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김제시를 중심으로 부안군, 완주군, 정읍시, 전주시, 익산시 지역에 넓게 펼쳐진 호남평야는 한국에서도 가장 큰 평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나주를 중심으로 하여 나주평야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넓은 땅 말고도 쌀을 생산할 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큰 강이 흘러야만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는데요. 호남 지역에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영산강 등 여러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남에는 드넓게 펼쳐진 넓은 평야와 큰 강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호남 지역에도 지리산, 덕유산, 무등산, 월출산, 미륵산 등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들은 여러 강의 물이 시작되는 수원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산, 강, 들판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지형 위에 호남 지역에는 많은 누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당시 전국의 누정을 총 885 곳이라고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그 가운데 경상도가 263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라도, 즉 호남 지역에 170개의 곳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한국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누정의 수는 전라남도가 34곳, 전라북도가 34곳에 달합니다. 호남 지역 전체로 보면 모두 68곳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선 중기의 현황과 비슷하게 영남 지역인 경상북도, 경상남도 다음으로 많은 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처럼 문화재로 등록된 누정은 조선시대 이전에 만들어져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그러한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문헌 기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누정의 개수가 무려 3,74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온 이후로도 많은 수의 누정이 지속적으로 생겨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 누정의 특색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누정마다 나름의 역사와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호남 지역 누정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누정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 누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누정은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피향정입니다. 피향정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보물 제289호로 지정되어 있는 누정이며 문헌 기록상으로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피향정은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신라 시대 최치원이라는 분이 태인 태수로 재직할 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치원은 한국 유학의 시조로 불리기도 하고 한문학의 시조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무척 위상이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유학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무척 깊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피향정이 정확하게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정자 앞에는 본래 상연지와 하연지라고 하는 두 곳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서 연꽃 향기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이름도 피향정, 즉 향기가 피어나는 정자로 짓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누정은 전주에 위치한 한벽당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경치 여러 곳을 한 데 묶어 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 즉 ‘팔경’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벽당은 오래전부터 전주의 아름다운 여덟 곳 경치 가운데 하나, 즉 전주 팔경으로 불리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명칭에 찰 한(寒)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글자가 들어가는 누정인 남원의 광한루 그리고 무주의 한풍루와 함께 호남의 삼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 정자는 조선 초에 최담이라는 분이 자신의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최담의 아들인 최덕지 역시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이 누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정자를 만들었던 최담의 호인 월당으로부터 가져와 월당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차례 중수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름인 한벽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1828년에 중수한 형태입니다. 이 한벽당은 전주 동쪽에 위치한 승암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바로 아래로는 전주천이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곧게 흘러가던 전주천이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위치에서 물이 바위와 부딪히면서 물안개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안개를 맑은 연기에 비유해서 나온 표현이 바로 한벽당의 맑은 연기. 즉 ‘한벽청연’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전주 팔경 가운데 하나인 한벽당의 경치를 잘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산과 물이 잘 어우러진 곳에 세워진 한벽당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는 정자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누정인 태인의 피향정 그리고 전주의 한벽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누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독 건물인 누정뿐만 아니라 누정이 더 큰 공간으로 확장된 개념인 누원 또는 원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남원의 광한루원, 담양의 소쇄원, 완도군 보길도의 부용동 원림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정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만든 단독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누원과 원림은 원래 존재하던 자연을 이용하되, 누정을 중심으로 여러 건축물과 인공적인 조경을 더한 큰 규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한루원은 광한루라고 하는 누정을 중심으로 오작교라고 하는 다리, 영주각, 완월정이라고 하는 주변의 작은 누정, 호수와 세 곳의 인공섬 등이 어우러진 큰 규모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광한루라고 하는 주연이 여러 조연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죠.

담양의 소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쇄원에는 대봉대의 초정, 광풍각, 제월당과 같은 아름다운 정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쇄원은 정자들을 중심으로 주변을 두른 꽃과 나무, 작은 개울, 연못, 물방아, 다리, 바위, 꽃, 새, 폭포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소쇄원 역시 아주 큰 규모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 보길도의 부용동 원림은 광한루원이나 소쇄원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더 큼니다. 그래서 원림이라고 부릅니다. 부용동 원림 역시 세연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중심으로 20여 개가 넘는 건축물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주 큰 규모의 정원입니다. 누정보다도 누정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특별히 원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광한루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한루원을 대표하는 누정인 광한루는 건축물로서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한국의 보물 제2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광한루원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그리고 광한루라고 하는 중심 건물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누정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여러 개의 건축물과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광한루원에 세워진 건물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이 잘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광한루는 한국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인 춘향전의 무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춘향전의 곳곳에는 광한루를 비롯하여 광한루원의 여러 장소가 등장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남원을 떠올리면서 광한루원의 곳곳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당시 남원의 랜드마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광한루원이 위치한 남원시에서는 광한루원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여 오늘날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원하면 광한루, 광한루하면 남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소쇄원 역시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쇄원은 조선 중기, 여러 차례의 사화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정치 현실을 피해 고향으로 은거한 양산보라는 분이 만든 개인 정원입니다. 개인 정원으로는 무척 규모가 큰데요. 양산보는 이곳에서 소쇄원을 만들어두고 자연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호남 지역의 여러 문인들, 학자들과 함께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시문을 창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산보는 자신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는 이 소쇄원을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유언을 남겨 잘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쇄원은 한국 고전문학 가운데 가사문학과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소쇄원이 위치한 담양군에서는 아주 많은 수의 가사문학 작품이 창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라남도에서는 소쇄원이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가사문학

면'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부용동 원림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원을 생각할 때 광한루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듯이 보길도라고 하면 바로 이 부용동원림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용동원림은 윤선도라고 하는 조선시대 문인이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낸 아주 큰 정원입니다. 이 원림을 두고서 '윤선도 원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선도는 병자호란 이후에 당시 정치 현실에 실망해서 아주 먼 곳을 찾아 은거하고자 하였는데요.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우연히 찾게 된 곳이 바로 이 보길도의 부용동이었습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한 윤선도는 아예 터를 잡고 눌러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노력을 거쳐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부용동원림입니다. 윤선도는 바로 이곳에서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조를 대표하는 작품인 〈어부사시사〉가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한 누정들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많은 수의 누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학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시조, 가사와 같은 조선시대의 국문 시가들은 바로 이 누정을 중심으로 창작되고 향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정은 단순히 자연을 즐기기 위한 건축물 하나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학사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 문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문헌】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누정 기초목록, 2015.



## 5차시 경상도 누정의 조감

### 학습 목표

- 경상도 누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상남북도를 대표하는 누정의 대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도의 누정을 한눈에 조감, 그러니까 overview 해보겠습니다.

경상도는 영남이라고도 부릅니다. 영남이라는 이름은 원래 계림령 또는 조령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명칭으로는 경상북도의 상주와 문경 부근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경상도, 즉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5세기 이전 한국에도 누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장 오래된 누정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보이는데요. 488년 신라의 21대 왕인 비처왕이 천천정에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후 누정의 기록은 문헌의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정은 일반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에 짓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나 바닷가 근처에 누정이 많은데 아마도 그곳이 빼어난 경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도에 누정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누정의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화유적총람’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거의 300개에 이르는 누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남아있는 누정의 수는 100개가 되지 않으니 경상도에는 정말 많은 누정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중에서도 경주에 21개, 안동에 41개, 영일에 12개, 영주에 22개, 봉화에 16개, 함안에 13개, 거창에 19개, 합천에 14개 등이 남아있어서 역시 낙동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누정을 짓게 만든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1929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이라는 책에 기대어 보면 경상도의 누정은 1,295개로 그 수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든 한국에서

는 경상도에 누정이 가장 많이 지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상도는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으로 대표되는 정신 문화의 수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15세기 중반 이후 누정 건축의 붐을 일으킨 지역 역시 경상도인 사실을 통해서도 문화 수도로서의 경상도 지역에 누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1,200여 개가 넘고 적게 잡아도 300개에 가까운 경상도의 누정을 이번 시간에 모두 다루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가장 널리 알려진 누각과 정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축석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는 풍경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 방어의 핵심이었던 만큼 성, 그러니까 castle이 진주 지역에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지금의 남강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둘러서 쌓았는데 축석루는 바로 이런 진주성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그저 풍경만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적들의 침입을 살피고 방어하는 요새, fortress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석루는 1241년 고려시대인데요. 1241년에 김지대라는 분이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용두사라는 절의 부속 건물이었는데 진주목사, 그러니까 진주시장입니다. 진주목사로 재직하던 김지대라는 분이 절에 부속되어 있던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불에 타고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지고 고치기를 십여 차례, 열차례가 넘게 반복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석루뿐 아니라 임진왜란에서 스러진 무수한 영혼들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창렬사나 일본 장수를 안고 함께 남강으로 뛰어들어 삶을 마감했다는 논개의 자취가 스며 있는 의암. 그리고 그 논개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 의기사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영남루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영남루는 축석루와 더불어 그 우열, 그러니까 누가 낫고 누가 못한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지역의 자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는 점 역시 밝히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영남루가 자리 잡은 밀양은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영남대로가 지나는 길에 있습니다. 따라서 빼어난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공식적인 임무로 길을 나서던 관리들이나 아름다운 풍경에 이끌려 쉬러온 지식인들이 오다가다 머물기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남루는 관리들이 머물며 잠자리를 해결하던 객사, 그러니까 숙소이자 휴식의 공간이었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와 시의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영남루는 영남사라는 절의 옛터에 지어졌기 때문에 영남루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두사라는 절의 부속 건물에서 시작한 축석루와 마찬가지로 영남루 역시 영남사라는 절의 부속 건물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축석루에도 가운데 웅장한 건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양쪽 옆에 가운데 누각을 떠받드는 듯한 부속 누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남루도 마찬가지로 영남루는 부속 누각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능파당과 침류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류당과 가운데 건물을 잇는 여수각 역시 빼어난 건축미를 완성하는 데에 한몫하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여수각은 그 모양이 층층 계단과 같아서 층층각이라고도 부르고 층층 계단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달 월(月) 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월랑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상남도의 누각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는 경상북도로 가볼까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소개할 정자는 청암정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중에서도 유곡리라고 하는 지역에 청암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암정은 권벌이라는 분이 지은 건물인데요. 1526년 49세였던 권벌은 자신의 거처를 짓고 그 거처를 총재와 청암정이라고 각각 이름을 짓습니다. 그중 청암정은 건물 주변을 물로 두르고 다리를 놓아서 총재에서 청암정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기 힘든 구조이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름다움이 청암정을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정자는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입니다. 예천 가운데서도 용문면 죽림리에 초간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희가 지었던 무이정사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므로 초간정사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이 초간정사는 권문해라는 분이 지은 정자입니다. 정자의 앞으로 냇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으로 건물이 둘러싸여 있으니 그 풍경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582년에 완공된 이 정자는 권문해가 은퇴한 이후 학문에 전념하며 편안히 쉬기 위해 만든 정자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니며 주변 환경을 만끽하기 위해 심어 둔 소나무와 대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나무들이 현재의 초간정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처음 지었을 때의 풍경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누각은 경상북도 안동시 병산서원의 만대루입니다. 안동시 풍산면에는 병산서원이 있고 병산서원을 드나드는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누각이 바로 만대루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정자가 개인의 휴식이나 인격의 수양을 위한 장소인 데 반해 만대루는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들이 쉬거나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의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만대루 아래로 들어가면, 좌우에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에 병산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고 경전을 공부하는 입교당,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존덕사가 나타납니다. 만대루를 품고 있는 병산서원의 모태는 풍악서당입니다. 풍악서당은 풍산 읍내에 있던 서당인데 풍산 주변이 소란스럽다고 여긴 류성룡이 그러니까 주변이 너무 시끌시끌하다는 거죠. 그렇게 여긴 류성룡이 1572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짓고 그 이름을 병산서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영남남인학맥 그러니까 이황 학파입니다. 영남남인학맥의 중심축인 류성룡은 이황의 제자로서 학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임진왜란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술한 <<징비록>>도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정자는 계정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계정은 유일하게 초가집으로 계승되고 있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짚으로 덮었다는 이야기죠. 건물도 소박하고 건물의 지붕을 이은 짚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을 지은 류성룡의 제자로서 남인학맥, 영남남인학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경세는 1603년에 계정을 짓고 처음에는 청간, 그러니까 청간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쉼의 공간인 계정 외에도 다양한 생활의 공간을 그는 지었는데요. 정경세가 지었던 소박한 건물이 비교적 크게 바뀐 건물은 아마도 대산루일 것입니다.

대산루는 말 그대로 누각인데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정경세가 지은 작은 건물을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 정종로가 고쳐 지은 것입니다. 참고로 정경세의 6대손인 정종로 역시 영남남인학맥, 즉 퇴계학파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이들은 건물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까지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 이갑규, 김신곤, 김봉규, 『한국의 혼 누정』, 민속원, 2015.
- 우응순, 『누정-선비문화의 산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Lecture

## 1차시 누정의 개념과 한국 누정의 역사

So let's start with the concept of the term nujöng. Since Professor Ahn is the most specialized between us, why not Professor Ahn start with a brief explanation?

Nujöng contains two Chinese characters, Nu and Jöng.

They respectively indicate nugak and chöngja. So it is a compound term combining nugak and chöngja.

So how are nugak and chöngja different? Nugak is a tall, attic-style building. It is open, with no doors or walls. It has views in all directions. Nugaks are normally large, with two or more stories.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is is the Kyönghoeru in Kyöngbok Palace. The floorboards float higher off the ground. And the structure is open to view in all directions, without doors or walls. This is known as the nugak. Typically, the nugaks were built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y were used as a resting place when envoys from abroad are in town or when officials came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And what about chöngja?

Firstly, the chöngja is a single story, and is small in comparison to Nugaks. Some chöngjas are only a few rooms in size and have a thatched roof. Chöngjas, like nugaks, are often open on all sides. Some of them have walls and doors to make rooms so that people could stay inside. Some places even have heating systems called 'ondols' to keep them warm in the winter. Haeundaejöng in Kangnöng, Gangwon Province, or Sikyöngjöng in Tamyang, Jeolla Province, are good examples of this type. Sometimes chöngjas are built by government bureaus, but more often they are privately constructed.

So there's a difference in terms of who commissioned it and the scale. The nugaks were relatively large and were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a

public building.

Yes, if you look at the humanist atlas of the Chosŏn Dynasty called “Shinjŭngdonggungnyŏjisŭngnam” They have the categories of nugaks and chŏngjas. They include not only Nu and Jŏng, but others such as Tae, Kak, Tang, Hŏn are also included. So if the name of the building has words like Tae, Kak, Tang, Hŏn, Jae, etc. It's safe to say it's a form of chŏngja or nugak.

There are other names other than nujŏng, such as nuwŏn and wŏllim. What is this? A nuwŏn should be seen as an enlargement of a nugak. It may be considered a large garden centered on a nugak and chŏngja, with surrounding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It may be considered a large garden centered on a nugak and chŏngja, with surrounding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A good example is Kwanghalluwŏn in Namwon, Jeollabuk Province. It is centered on a nugak called Kwanghallu, A large garden with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and man-made lakes, bridges, structures, et cetera. Rather than focusing on the beauty of a single nugak or chŏngja, We call it a nuwŏn, rather than nujŏng because the landscape surrounding the chŏngja creates harmony.

So what is wŏllim?

Wŏllim is a similar concept to nuwŏn. But as you can see from the character ‘Lim’ for bush in its name. I believe it gives more mean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hŏngja. There is a large garden created by Yun Sŏn Province in Pogildo, Jeollanam Province. It is called Yunsŏndo wŏllim, rather than Yunsundo nuwŏn. We can say that this is the case with wŏllim.

So, when did nugaks and chŏngjas start being made in Korea? When I travel in Korea, there are nugaks that looked very ancient. And there are some that look as though it's recently made, right? I'm sure there's a record of it in some history book or something. Wouldn't it be in “Samgugyusa” or “Samguksagi”?

That's right. There are records of nugaks in Ssmgugyusa and Samguksagi. The earliest record is in Samgugyusa. In 488, there is a record of King Soji of Silla visiting Ch'ŏnch'ŏnjŏng. There are also records in “Samguksa” In 500,

King Tongsǒng of Paekje built the Imnyugak on the east side of the palace and held a banquet there. There is also a record that in 636, King Mu of Paekje gave a feast to his subjects at Manghaeru.

The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nugaks were constructed mainly for the royal family. And they were used as the official venue to party by the state, one may say.

Yes, that's right. It would have taken a lot of money and manpower to build such a building. So this would have been handled by the state.

If the history of nujǒng starte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re naturally would have been far more nujǒngs in the Koryǒperiod. In the Koryǒperiod, do we start to see not only royal but also individual nugaks?

Yes, there were a lot of nugaks and chǒngjas constructed publicly by the royal family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In Koryǒhistory, there are many records of royal nugaks. In 1073, King Munjong built a chǒngja at P'yǒngri Station. In 1106, there is a record of King Yejong writing poetry and archery with his officials at Kach'angru. Also, in 1157 King Ŭijong demolished about 50 houses around the palace to construct a nugak called T'aep'yǒngjǒng. This invited much resentment among the people, the record shows.

In Koryǒthere are a lot of nugaks made by local government offices to welcome guests. Chuksǒru-ro in Samchǒk, Gangwon Province, or Yǒngnam-ro in Miryang, Kyǒngsang Province, are representative of this. Where can I find the records of the nugaks by individuals?

They could be found in a book called Tongmunsǒn, which collects poem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early Chosǒn Dynasty. There are traces available in the private writings of Koryǒ-era writers. A writer from late Koryǒnamed Mok had a friend named Kim Chik-ji. In the records Kim Chik-ji built a chǒngja called Yuk IkJǒng in his house and enjoyed himself there. In the late Koryǒperiod, we also begin to see privately built nugaks by the writers themselves.

In sum, the royal family or the government originally constructed nugaks for public purposes. And over time, we started to se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ividuals making their own nugaks, one could say. If you look at it that way, I think that number is going to be higher when we start moving into the Chosŏn era.

Correct, in the Chosŏn Dynasty, the number of nugaks starts to increase rapidly. It's because there are a lot of Confucian literati who built these nugak.

Are there any reliable records?

Yes. If you look at the geographical map of “Sejong Silok” published in 1454, It is said that in the early days of Chosŏn, there were more than 50 nugaks across the country. However, if you look at “Shinjŭngdonggungnyŏjisŭngnam” published in 1530, about 80 years later. There are over 800 of them across the country. Further back in time, in the mid-18th century, so the mid-1700s, If you look at the map books compiled during the King Yŏngjo in late Chosŏn, there are over 1,000 nugaks. Also, a town directory compiled in the late 19th century lists 1,883 nugaks across the country. Indicating that they have been created a lot over time.

You mentioned that the number of nugaks grow dramatically during the Chosŏn Dynasty. I think thi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view of provenance that the Chosŏn Dynasty's literati possessed. Sadaebu is a compound word combining ‘Sa’ and ‘Daebu’. When in politics, they are ‘Daebu’, and retired and preoccupied in reading, ‘Sa’. For the Daebus already engaged in official capacity it would not have mattered so much. For the Sas living in their hometown or in seclusion, I would have needed a place to study while enjoying nature.

Yes, people who retired to the provinces were not just idle. Whether one is a self-taught scholar or gathering a group of disciples in one's neighborhood. They were engaged in such scholarly activities. They built nugaks in scenic spots to admire and enjoy nature. A prime example would be Tongrakdang in Kyŏngju, Kyŏnggi Province. Another example of this would be in Tamyang, Jeolla Province.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Tokrakdang's Kyejŏng and Myŏnangjŏng?

Let's start with Tokrakdang. When a man named Yi Yŏnjŏk was forty years old, he served at 'Saganwŏn' in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 At this time, he saw Kim An-ro manipulating state affairs and opposed his appointment. At this point, Yi was removed from his office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of Gyeongsang Province. And he built a nugak named Tongraktang and studied studiously. The name Tongrak has a meaning of enjoying by oneself. Reading the writings of the Sages in avoidance of busy and noisy secular affairs and coming to understanding the truth. Finding the enjoyment oneself, that is what it means. Around the same time, there was a person named Song Sun. In 1533, he briefly stepped down from the office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of Tamyang, Jeolla Province. In Tamyang, he built a chŏngja called Myŏnangjŏng, where he discussed scholarship and enjoyed poetry and wine. Prof. Paek Chin-wu : Since the 16th century, the great literati have withdrawn from central government positions and retreated to their local hometowns. That's a dramatic increase in private nugaks. Centered around these nugaks, one can enjoy nature and make academic connections. Or maybe have poetry gatherings and enjoying the nature. It must have been through these activities that Korea's nujŏng culture widely developed.

The concept and types of nugaks and chŏngja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Chosŏn Dynasty. We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Korean nugaks and chŏngjas. I'll let the two of you summarize.

Okay. Nujŏng is a compound word of nugak and chŏngja. Nugak is an elevated, attic-like structure that provides a view in all directions. It was built in the open, with no doors or walls. A chŏngja is a single layer, and it is small compared to a ridge. They put up walls, put doors, made them into rooms, and stayed there.

Records of Korean nujŏng first appear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nujŏng were built primarily by the royal family and used for official ceremonies. The Koryŏ Dynasty had a similar situation to the Three Kingdoms. By the late Koryŏ period, chŏngjas were being built by literati privately. In the Chosŏn Dynasty, the literati who had

retired from the court returned to their respective hometowns. And created chŏngjas. Thi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nujŏng. They admired nature, debated scholarship, held poetry competitions, and entertained themselves in nujŏng. In doing so, a culture of literati was formed around nujŏng.

Today, we learned about the concept and types of nujŏng, And we've looked at the history of Korean nujŏng.

---

## 2차시 누정의 기능과 누정 문화

---

Good morning.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function of a nujöng and Korean Nujöng culture.

Nujöng is a term that combines nugak and chöngja. Nugak and chöngja were originally built for public use, right? Could Dr. Ahn explain this in more detail?

Yes, let me explain. Nugak originally originated from the watchtowers of castles and chöngja of government stations. The nugak was built high above the castle and used to watch over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astle. The chöngja was an attached building of the government station and was used as a resting place for travelers.

We can also see these uses by looking at the Chinese characters that define Nu. Nu means a high building, so it can be seen that it had the function of surveillance. Jung means to stop, so I think it is related to the function of stopping and resting for a while.

In later generations, nujöng became more utilized as a space to appreciate nature and take a break. However, nugak were large and used for public purposes. In contrast, chöngja was relatively small and used for private purposes. So, chöngja was used by royalty and aristocrats to enjoy entertainment or to hold poetry meetings, that is, to write poems and drink alcohol. It can be said that it is a formal space for enjoying poetry. Chöngja functioned as a place for travelers to rest and meet.

Then, it would have to be said that the nujöng had various functions. Today, let's talk about what it meant as a cultural space. As nujöng was built in a scenic area, Wouldn't it have been most meaningful to have such a space to appreciate the beautiful nature?

Yes, that's right. Most of the nujung were built with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And they are located in places where you can see the surrounding landscape at a glance. For example, if you go to Ch'unch'ön, Gangwon

Province, there is a chŏngja called Soyangjŏng. Behind you is a mountain called Mt. Bongŭi, and in front of you is the Soyang River. It was said that this is a suitable place for 'Yosan Yosu', so Soyangjŏng is also called Iyoru. Most of the people who traveled to Ch'unch'ŏn would go up to Soyangjŏng and relax while admiring the mountain and water.

It means to enjoy the 'mountains and water'. It was originally said by Confucius, 'Inja Yosan, Jija Yosu'. So a wise person, someone who loves others and can empathize with others, loves mountains. And a wise person enjoys water. To be great, one needs to see and feel the beauty of nature. And be able to realize the reason, principle, and meaning of natural things.

Then we can say that the first function of nujŏng is to appreciate the beauty of nature. But in a scenic place, besides nature, one can't miss alcohol and poetry.

Of course, literati used to gather at nujŏng to drink and write poetry. These gatherings to write poetry are called 'Sihoe'. Many famous poetry circles have emerged around the famous nujŏng. For example, in Kangnŭng, Gangwon Province, there is a chŏngja called Kŭmranjŏng. Here, the Kŭmran Panwŏlhoe was held periodically. Kŭmran Panwŏlhoe has a very long history. It was first formed in 1466. The tradition was maintained until the Japanese annex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name Kŭmranjŏng comes from the saying 'Kŭmranjigyo'. It means that the members of the meeting should have a close friendship. The members of the poetry council gathered at Kŭmranjŏng to write poetry and enjoy the culture of the nature.

A similar example can be seen in the Tamyang area of Jeolla Province, where many beautiful nujungs are said to remain. In the 16th century, there were several groups of literati centered around a chŏngja called Sikyŏngjŏng. One example is that they were called the Sikyŏngjŏng Shidan.

So far, we've talked about appreciating nature and enjoying poetry and alcohol in nujŏng. We've been talking about playing, but our ancestors didn't just play in nujŏng, right?

Yes. Another important function of nujŏng is its meaning as an academic space. In the center of nujŏng, there is not only a brightly lit area in all

directions.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walls and doors were built and used as if they were their own living quarters or study. In such a space, they would discuss their studies with their acquaintances, students, and friends.

I like to play, but when we talk about academic matters. Some chŏngja were built in Sŏwon, such as Mandaeru in Andong,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Chosŏn Dynasty, Sŏwon was on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fore, nujŏng in Sŏwon, like Mandaeru, were used to appreciate nature and relax. They were also used for education and academic discussions. In this way, nujŏng can be said to be a comprehensive cultural space.

Another function is that of a creative space for literary works. In this regard, we can talk about “Nujŏngjeyŏng” and “Nujŏngi”. In the geographical maps of the Chosŏn Dynasty, including Shinjŭngdonggungnyŏjisŭngnam, there were also nujŏngjeyoung and nujŏnggi under the category of nujŏng. That must have been the reason.

That's right. You could go up to the nujŏng and enjoy the nature. And wrote a lot of poems with the theme of nujŏng when I gathered with my acquaintances, friends, and enjoyed the nature. The poems were usually written in the form of Ch'aun. A Ch'aun is a poem that follows the rhyme of a poem written by someone else. One person would write a poem, and other would take turns writing poems using the rhymes of that poem. To commemorate this, we made a poetry book. The poems were written, drawn, and carved on wooden boards and hung in the nujŏng. Later generations would see the poems hanging in the nujŏng and continue to write Ch'aun poems.

The longer the history of nujŏng and the more spectacular the scenery, the more Nujŏngjeyŏng there were. In the case of the Choksŏkru in Gyeongsangma Province, more than 1,000 poems were created from the late Koryŏ Dynasty to the modern era.

However, some of the Nujŏngjeyŏng were created in a unique format, such as ‘P'algyŏngsi’ and ‘Sasisa’. P'algyŏngsi are serialized poems written in eight lines with eight different titles based on beautiful scenery. If you go to

Samch'ök, Gangwon Province, there is a chŏngja called Chuksŏru. This Chuksŏru Eight Poems were created during the Koryŏ Dynasty, and currently several verses survive. Sasisa is a serialized poem written in four stanzas that depicts the scenery of the four seasons of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around the chŏngja. There is a chŏngja called Pinghŏru in Yŏngwol, Gangwon Province. Several other Sasisa have been created and known to this day.

So, when it comes to Nujŏngjeyŏng, we need to know a little bit about Chaunsi, P'algyŏngsi, and Sasisa together. Another thing is to learn about the prose works. The prose works written about nujŏng are called Nujŏnggi. I wonder if you could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The word "Nujŏnggi" means a text attached to a nujŏng. In general, it record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building the nujŏng and It describes the mountain-and-water around the nujŏng, meaning the landscape, and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e nujŏng's name. The location of the nujŏng, the process of its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e. how it was first built and repaired And the purpose of its construction, as well as the meaning of its name can be found out.

In the case of a nujŏng with a long history, it may have been repaired several times in the meantime. Or, if it was completely destroyed, it was often rebuilt anew. Did you use a Nujŏnggi in these cases?

That's right. Let's take Pup'yŏnggak in Wŏnju, Gangwon Province as an example. A Nuggak named Pup'yŏnggak was first built in 1695 by an official called Yi Myŏng-han. Currently, there are still a Nujŏnggi built in 1695 by a literati named Oh To-il. After that, a man named Yi Wu-sin composed a Nujŏnggi in 1734. The Nujŏnggi by Sŏ Myŏng-sŏn in 1771 and Hong Sŏk-ju in 1811 are still in place. The building has been demolished and only the site remain. Through these Nujŏnggi, one can find out when Pup'yŏnggak was first built. How it was fell into ruin, and how it was rebuilt in the middle.

Then the nujŏng will become more known to people through the Nujŏnggi and Nujŏngjeyongsi. And its value as a scenic spot became even greater.

So far, we've been looking at the function of nujŏng and its culture

together. Please summarize the contents briefly. Nujǒng was basically built in a scenic location. The first function was to serve as a place to appreciate nature and relax. It was also a space for literati to gather and enjoy poetry and alcohol.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a place of education and debates, where students were taught and scholars discussed their work. It can be said that nujǒng was a comprehensive cultural space.

Nujǒng was a complex cultural space. It was also a creative space for literary works such as Nujǒngjeyǒng and Nujǒngi. Nujǒngjeyǒng is a poem based on the theme of nujǒng. People who got on a nujǒng would look at the poems of the ancients hanging in the chǒngja and write them in the form of Ch'aun poems. A Nujǒngi is an inscription attached to a nujǒng. It record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building the nujǒng, describes the beautiful scenery around it,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 name. With the help of the Nujǒngjeyǒng and Nujǒngi, nujǒng became even more famous.

Today, we've learned about the different functions of a nujǒng. And we looked at the Korean nujǒng culture and the nujǒng poetry.



### 3차시 관동팔경과 강원도의 누정

This is Taengniji by the late Chosŏn Dynasty scholar Yi Ch'ung-hwan. Kwandong refers to Gangwon Province, and the eight scenes refer to the eight outstanding scenic spots. Chunghwan describes the scenic spots in Gangwon Province represented by the Eight Scenes of Gwandong as follows.

There are many outstanding scenic spots in Gangwon Province, such as nudae and chŏngja. Sijungdae in Hŭpkok, Ch'ongsŏkjŏng in T'ongchŏn, Samilpo in Kosŏng, Chŏngganjŏng in Gansung, and Ch'ŏngch'oho in Yangyang, Gyŏngpo-dae in Kangnŭng, Chuksŏru in Samch'ŏk, and Mangyangjŏng in Uljin are called the eight scenic spots of Gwandong. To the west of the nine towns in the Yŏngdong region are Kŭmgangsan, Sŏraksan, Tut'asan, and T'aebaeksan. There are many strange and beautiful scenery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sea.

Chunghwan said that Gangwon Province is located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sea, so there are many beautiful scenic spots. Based on Taegwallyŏng, Gangwon Province is divided into Yŏngsŏ region in the west and Yŏngdong region in the east. The Yŏngdong region is dominated by the T'aebaek Mountains to the west and the East Sea to the east. Mt. Kŭmgang, Mt. Sŏrak, Mt. Tut'a, and Mt. T'aebaek are the main mountains that make up the T'aebaek Mountain Range. The Kwandong Eight Sights are located in the Yŏngdong region, between the T'aebaek Mountains and the East Sea. However, if you look at the Kwandong Eight Sights, you will see Sijungdae in Sukgok, Chŏngganjŏng in Gansung, and Gyŏngpo-dae in Kangnŭng, Chuksŏru in Samch'ŏk, and Mangyangjŏng in Uljin are mostly Nudae and Chŏngja. You can see that the importance of Nujŏng in the scenic spots of Gangwon Province loomed large.

Yi Ch'ung-hwan included Sijungdae in Sukgok and Ch'ŏngch'oho in Yangyang in the Eight Scenes of the Kwandong. However, in general, instead of Shijungdae in the Kwandong Eight Sights, we have Walsongjŏng in P'yŏnghae. And Yangyang's Naksanji in place of Ch'ŏngch'ho. Mangyangjŏng in Uljin and

Wolsongjǒng in P'yŏnghae are currently part of Kyŏngsangbuk Province. However, during the Chosŏn Dynasty, Uljin and P'yŏnghae were part of Gangwon Province. From the map, one can see that most of the Kwandong Eight Sights, from Chongsŏkjŏng in Tongchŏn to Wolsongjŏng in Pyŏnghae, are nujŏng. Are all located on the east coast of Gangwon Province.

Yi Kok, a writer from the late Koryŏ Dynasty, traveled to Mt. Kŭmgang and the Kwandong Eight Sights and wrote a travelogue called Tongyugi. The Kwandong Eight Sights was firmly established as a favorite tourist destination in Gangwon Province by the literati. This trend continued into the Chosŏn Dynasty. In 1553, Hong Inwoo, a writer from the Chosŏn Dynasty, traveled to Kŭmgangsan and Gangwon Province and wrote a travelogue called 'Kwandong Ilok'. The Kwandong Ilok details the weather, journey, and episodes of every day of his trip to Gangwon Province and back.

During the Chosŏn Dynasty, many literary figures traveled through the eight scenic spots, writing poems in Korean and writing travelogues. And produced many great literary works. The Chinese was the lingua franca of the Chosŏn Dynasty. The literary figures of the Chosŏn Dynasty also wrote mainly in Chinese.

However, T'oegye Yi Hwang even wrote his Sijo in Hangul. Songgang Chŏng Ch'ŏl also wrote Kasa in Hangul. The writers of the Chosŏn Dynasty mainly used Chinese, which was introduced from China. Because it had a different language system than Korean. They felt limited when creating literary works. Among the literary works written in Hangul in relation to the Kwandong Eight Sights are The most famous is Kwandong Pyŏlgok, written by Songgang Chŏng Ch'ŏl, a literary figure from the Chosŏn Dynasty. It was written in 1580 when Chŏng Ch'ŏl was 45 years old and was assigned as an observer in Gangwon Province. He traveled throughout Mt. Kŭmgang and the Kwandong Eight Sights, and expressed his impressions of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song. This Kwandong Pyŏlgok was sung and loved by many during the Chosŏn Dynasty.

The Kwandong Pyŏlgok was not only used as a literary work during the Chosŏn Dynasty, but also as a subject for paintings. Famous painters from

the late Chosŏn Dynasty, such as Kyŏmjae Chŏng Sŏn, Tanwŏn Kim Hong-do, and P'yoam Kang Se-hwang, created paintings. Traveled to the Mt. Kŭmgang and Kwandong Eight Sights and left behind a collection of drawings. Kyŏmjae Chŏng Sŏn left the Kwandong Myŏngsŭngch'ŏp, while Kim Hong-do left the Kŭmgangsagunch'ŏp. And Kang Se-hwang left a picture book called P'ungakjangyuch'ŏp.

What you see here is a painting of Samchŏk's Chuksŏru from Kwandong Myŏngsŭngch'ŏp of Chŏng Sŏn. The image of Chuksŏru built on a towering rocky cliff is majestic. In particular, the eight scenic spots of the Kwandong Eight Sights were often produced as eight-wide folding screen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Each of the eight scenic spots in the Kwandong Eight Sights was painted in one width, making a total of eight widths. People who hadn't been to the Kwandong Eight Sights in person were able to see them through picture books and eight-wide folding screens. They could indirectly appreciate the outstanding scenery of the Eight Scenic Spots.

The Gangwon Province wells included in the Kwandong Eight Sights are all located in the Yŏngdong region. However, there are also many ancient and stunning troughs in the Yŏngsŏ region of Gangwon Province.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st famous ones in the Yŏngsŏ region of Gangwon Province. Soyangjŏng in Ch'unchŏn, Pupyŏnggak in Wonju, Pumpajŏng in Hongch'ŏn, and Hapgangjŏng in Inje. Pinghŏru and Kŭmgangjŏng in Yŏngwol, and Kosŏkjŏng in Ch'ŏrwŏn are representative of the Yŏngsŏ region. Ch'ŏngganjŏng in Kosŏng, Kyŏngpodae in Kangnŭng, Chuksŏru in Samch'ŏk, etc. The nujŏng of the Yŏngdong region were located in the west with the Taebaek Mountain Range and the East Sea to the east. In other words, the nujŏngs of Yŏngdong were located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sea, so they could enjoy both.

Yŏngsŏ doesn't have an ocean, but instead has a river. So the nujŏng in Yŏngsŏ is located in a place where you can see the mountains behind you and the river in front of you. These were viewpoints where you could see both the mountains and the river. So how many nujŏngs were there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Chosŏn Dynasty?

Geographical maps compiled during the Chosŏn Dynasty give us a rough

idea of the number of the *nujöngs* in Gangwon Province. The “*Shinjöngdonggukyöjisöngnam*” and “*Yöjidosö*” are national-scale geographical maps representing the early Chosön and late Chosön periods, respectively. *Kwandongji* is a geographic map of Gangwon Province in the late Chosön Dynasty. These three geographical maps record the *nujöng* in each of the 26 towns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Chosön Dynasty. The Gangwon map was published in 1941,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so it was not published during the Chosön Dynasty. However, the Gangwon Gazetteer inherits the geographic tradition of the Chosön Dynasty. It is an important source that tells us the approximate status of the *nujöng* in Gangwon Province during Chosön.

The Chosön geographical map divided Gangwon Province into 26 towns and recorded *nujöng* for each town. However, Gangwon Province puts *nujöng* at the top of the list. We chose to record the *nujöng* of all the towns in Gangwon Province at once. Soon, if you look at the *nujöng* for Gangwon Province, starting with *Soyangjöng* in *Ch'unchön*. 26 towns in Gangwon Province are recorded one after another. This is a table summarizing the *nujöng* of Gangwon Province as recorded in the *Gangwondoji*.

*Uljin* and *P'yönghae* are currently part of *Gyöngsangbuk* Province, not Gangwon Province. However, *Uljin* and *P'yönghae* used to belong to Gangwon Province during the Chosön Dynasty. The change to *Gyöngsangbuk* Province occurred only recently, in 1960. Therefore, I included *Uljin* and *P'yönghae* in the *Nujöng* statistics of Gangwon Province.

There are a total of 235 *Nujöng* in Gangwon Province recorded in *Gangwondoji*. Not only are the trenches that remained until 1941, when *Gangwondoji* was published, recorded. But also those that had already disappeared and only the ruins remained.

The *Yöngdong* region, including *Kangnöng*, *Samch'ök*, *Yangyang*, *Kosöng*, and *Uljin*, has more than 140 *nujöngs*, accounting for about 60% of the total. Out of 26 towns, only 9 are in *Yöngdong*. The number of the *nujöngs* was much higher than in *Yöngsö*.

This poem is part of a poem called *Kwandonghang*, written by *Sö Kö-jöng*,

a literary figure from the Chosŏn Dynasty. The title Kwandonghang means a song about the Kwandong region. Kwandong refers to Gangwon Province. The poem was written by an acquaintance when he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Gangwon Province. In the poem, Sŏ Kŏ-jŏng says, “The outstanding scenery of the Kanto region is rare in the world. The people who enjoy the nature there are Yusŏn.” As Sŏ Kŏ-jŏng said, to enjoy the scenic beauty of Gangwon Province was to be a Yusŏn, or a Confucian scholar who became a demigod.

To enjoy the scenic spots, including nujŏngs in Gangwon Province during Chosŏn. It was to forget about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world for a while and enter the world of the demigods.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Hong In-wu's Kwandong Ilok. The sand was white and the sea was blue, and it was difficult to breathe in the clear exuberance. I suddenly got off my horse and threw myself on the sand. I rolled over and over like a madman. People would have thought me mad.

Hong In-wu was on his way to Kyŏngp'odae in Kangnŭng when he saw the white sands of the East Sea and became excited. Hong threw himself onto the white sands like a madman and enjoyed himself. Even for a mild-mannered scholar like Hong, Gangwon proved to be a place where he could put aside his body and secular norms. And worldly norms, it was a place where he could enjoy freedom and revelry to his heart's content. As we've seen, there are a lot of nujŏng in Gangwon Province. Join me as we travel to Kyŏngp'odae in Kangnŭng, Chuksŏru in Samch'ŏk, and Soyangjŏng in Ch'unch'ŏn.

As we explor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se nujŏng, we'll see how the Chosŏn Dynasty authors did it. I hope you'll be able to forget about the troubles of the world and experience the freedom and exhilaration of a demigod.

---

## 4차시 호남의 누정 개관

---

Hello, today we are going to have an overview of the nujöng in the Honam region of Korea. The word Honam means the southside of the lake. There is a large river called Küm River, which flows through Chöllabuk Province and Chungchöngnam Province, bordering the two provinces. This river is called the Küm River because it is compared to a large lake.

Today, it is also the name of the combined administrative region of Chöllanam Province and Chöllabuk Province. This region has long been Korea's largest granary, producing the country's staple food, rice. This is because it is home to vast expanses of plains, which is unusual in Korea's mostly mountainous terrain.

In particular, it is centered on the city of Kimje in Chöllabuk Province, and includes the areas of Puan-gun, Wanju-gun, Chöng-öp, Chönju, and Iksan-si. The sprawling Honam Plain is the largest plain in Korea. And in Chöllanam Province, the Naju Plain, centered on Naju, is very large.

In addition to large areas of land, there's another thing you need to produce rice. That is water. You need a large river to provide enough water for farming. There are several large rivers flowing through Honam, including the Küm River, Mankyung, Tongjin, Sömjin, and Yöngsan. As one can see, Honam has a combination of wide open plains and large rivers.

However, Korea is basically a country where more than 70% of the country's land is mountains. There are many famous mountains in Honam, including Mt. Chiri, Mt. Töksan, Mt. Mudöng, Mt. Wolch'ul, and Mt. Mirök. And these mountains are also the source of water for many rivers. So on top of this beautiful terrain of mountains, rivers, and fields. In Honam region, many nujöng were built.

In 'Shinjöngdonggungnyöjisöngnam', compiled in 1530, it was record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885 nujöng in the country at that time. Among them, Kyöngsang Province had the most with 263, followed by Chölla Province. In other words, there were 170 in the Honam region. And as of 2023, the

number of nujöng registered and managed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s 34 in Chölla Province and 34 in Chöllabuk Province. 34 in Chöllanam Province and 34 in Chöllabuk Province. The total for the entire Honam region is 68. This is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middle of the Chosön Dynasty, and is the third highest number after Kyöngsangbuk Province and Kyöngsangnam Province.

Of course, many of these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were built before the Chosön Dynasty. And limited to the ones highly valued as cultural assets. Recent surveys have shown that there are many such structures in the Honam area. Whose existence can be confirmed through written records, is a whopping 3,742. This means that a large number of nujöngs have continued to be built since the modern era.

That's why it's hard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nan region's nujöng in one word. Each one has its own history and characteristics.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nujöngs in the Honam region that have a long history. That have a long history and are highly valued as cultural assets.

The first nujöng we'll look at is P'ihyangjöng, located in T'aein-myön, Chöngüp-si, Chöllabuk Province. P'ihyangjöng is designated as Korea's Treasure No. 289 in recognition of its value as a cultural property. It has the longest documented history in the Honam region.

P'ihyangjöng according to the literary record, It is known to have been created by a man named Ch'oe Ch'i-wön during the Silla period, when he served as the governor of T'aein. Ch'oe Ch'i-wön is also called the founder of Korean Confucianism. And the founder of Korean Sinitic literature and therefore historically very significant. In addition to Confucianism, he was also very interested in Buddhism and Taoism. However, we don't know exactly when P'ihyangjöng was built.

In front of the chöngja, there were originally two ponds called Sangyönji and Haeyönji. These ponds were filled with lotus flowers and were said to be filled with the scent of lotus. That's why the chöngja was named P'ihyangjöng, or the Chöngja of fragrance.

The next *nujöng* to visit is Hanwondang, located in Chönju. In China and Korea, several beautiful scenic spots were grouped together to form the Eight Beautiful Scene. This is known as 'P'algyöng' or the Eight Scenes. Hanbokdang has long been one of the eight beautiful scenic spots in Chönju, Or the Eight Scenes of Chönju. Because the name contains a same character 'Ch'al', it is also known as *nujöng*. Kwanghallu in Namwön and Hanp'ungru in Muju, it was called the Samhan of Honam.

The *chöngja* was originally built in the early Chosön Dynasty by a man named Ch'oe Tam, who returned to his hometown of Chönju. Ch'oe Tam's son, Ch'oe Tök-ji, also spent time here, teaching students. When the *nujöng* was first built, it was called Waldangru because it was taken from Hoin Waldang, belonging to Ch'oe Tam who built the *chöngja*. It was later changed to its current name, Hanwaldang, through a series of renovations.

The building that remains today was renovated in 1828. This Hanbokdang was so famous that it was called the Eight Views of Chönju. It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Chönju, at the foot of a small mountain called Söngamsan. Just below it, Chönju Stream flows widely. It is located at a point where the straight Chönju Stream takes a sharp turn. This is where the water hits the rocks and creates a beautiful water mist. This mist is likened to clear smoke, which is why the expression Hanbukdang's clear smoke, or Hanbukch'öngyön, is used. This expression was used by people to describe the view of Hanbukdang, one of the eight scenic spots in Chönju.

Hanbokdang is built in a place where mountains and water blend well together. And is located in a beautiful natural setting. So far, we've looked at two representative *nujöng* in the Honam region, P'ihyangjöng in T'aein and Hanbokdang in Chönju.

However,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nam *nujöngs* is that they are not only single buildings. But also there are *nuwon* or *wöllim*, an enlargement of a *nujöng*. Representative of this are Kwanghallu. Kwanghalluwön in Namwön, Soswaewön in Tamyang, and Puyongdong Wöllim in Pogildo, Wando-gun. Typically, *nujöngs* are stand-alone structures built to enjoy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around them. As such, they are often built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it was originally created. However, nuwon and wöllim use the natural environment as it is. They are large-scale spaces with multiple buildings and artificial landscaping centered around a nujöng.

For example, Kwanghalluwön is centered around a nujöng called Kwanghallu. A bridge called Ojakgyo, a pavilion called Yöngjugak, and a surrounding nujöng called Wanwöljöng. A lake, and three artificial islands are together, forming a large garden. In other words, the main cast, Kwanghallu, is harmonized with many supporting characters.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Soswaewön in Tamyang. There are some beautiful Chöngjas in Soswaewön, such as Taebongdae's Ch'ojöng, Kwangpunggak, and Chewoldang. But these chöngjas are not all. Surrounding the chöngjas are flowers, trees, small streams, and ponds. Water springs, bridges, rocks, flowers, birds, and waterfalls all work together to create a beautiful landscape. This Soswaewön can also be considered a garden on a very large scale.

Puryongdong Wöllim in Pogildo, Wando-gun, is much larger than Kwanghalluwön or Soswaewön. That's why it's called wöllim. Puryongdong wöllim also has more than 20 structures centered around a chöngja called Seyönjöng. And it is a very large-scale garden created by combining various types of natural environments. It is specially called wöllim because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nujöng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nujöng itself. Located in Namwön, Chöllabuk Province, Kwanghalluwön is one of the most famous tourist destinations in South Korea.

Kwanghalluwön's representative nujöng, Kwanghallu, has been recognized for its architectural and cultural value. It is currently designated as Korea's Treasure No. 281. The Kwanghalluwön has a very long history. And not only is the central building called Kwanghallu famous. But also because of the many other nujöngs that surround it and the beautiful harmony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It has been widely adored. The buildings in Kwanghalluwön also reflect the cosmological views of the people of the Chosön Dynasty.

Kwanghallu is also well known for being the setting for one of the most

iconic works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h’unhyangjŏn”. The novel Ch’unhyangjŏn features several locations in Kwanghalluwŏn, including Kwanghallu. The main characters in the novel also refer to various places in Kwanghalluwŏn while reminiscing about Namwŏn. In other words, it was a landmark of Namwŏn at the time. Due to this history, the city of Namwŏn, where Kwanghalluwŏn is located, considers Kwanghalluwŏn to be a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And actively utilizes it to this day. Therefore, people naturally think of Kwanghallu when they think of Namwŏn and Namwŏn when they think of Kwanghallu. Soswaewŏn, located in Tamyang-gun, Chŏllanam Province, is also a representative cultural space that symbolizes the region.

Soswaewŏn was built in the middle of the Chosŏn Dynasty to escape the chaotic political realities of the time. It is a private garden created by a man named Yang San-bo, who retreated to his hometown. It is very large for a private garden. Not only did Yang Sang-bo create Soswaewŏn to enjoy nature here. And gathered with other literati and scholars from the Honam region to discuss their studies and poetry. It is said that Yang San-bo loved this place so much that he put his own touch on every inch. He left it to his descendants to take care of it. As a result, its beauty can still be seen today.

Soswaewŏn is highly relevant to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particularly the Kasa literature. This is because a very large number of domestic literature works were created in Tamyang-gun, where Soswaewŏn is located. For this reason, Chŏllanam Province changed the nam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Soswaewŏn is located to Kasamunhak-myŏn.

Puyongdong wŏllim is located in Pogil Province, Wando-gun, Chŏllanam Province. Just as you can't think of Namwŏn without Kwanghalluwŏn. One can't think of Pogildo without thinking of Puyongdong wŏllim. Puyongdong wŏllim is a very large garden created by a Chosŏn Dynasty writer named Yun Sŏn Province with his own personal efforts. This is why it is sometimes called Yunsŏndo wŏllim. After the ‘Pyŏngja Invasion’, Yun Sŏn Province was disappointed with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and wanted to go into hiding in a very remote place. While traveling by boat to Jeju Island, he encountered a storm and stumbled upon Puyong Provinceng. Falling in love

with the beautiful scenery, Yun Sŏn Province settled down there. He began to create his own space one by one. This is where Puyongdong wŏllim was created after many years of hard work. Puyongdong wŏllim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rivate wŏllim of the Chosŏn Dynasty. It was here that Yun Sŏn Province's left behind a large number of works. His most famous work is the Korean Sijo, 'Öbusashisa'.

Today, we've examined some of the most important chŏngja in the Honam region.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hŏngja in the Honam region. And with such a large number comes a diverse and colorful literary heritage. In particular, Korean poetry from the Chosŏn Dynasty, such as Sijo and Kasa, was created and enjoyed in these chŏngjas. As such, nujŏng is not just a structure for enjoying nature. It was a cultural space with a very important function and meaning in literary and cultural history.

---

## 5차시 경상도 누정의 조감

---

In this lecture, we will take a bird's eye view, or overview, of the nujöng in Gyeongsang Province.

‘Gyeongsang Province’ is also known as ‘Yöngnam’. The name Yöngnam originally referred to Kyerimnyöng or the southern region of Choryöng. In other words, it was a name for the area around Sangju and Mun'gyöng in Gyeongsangbuk Province. However, today, it has come to mean Gyeongsang Province. That is, it now refers to the whole of Gyeongsangbuk Province and Gyeongsangnam Province.

Though uncertain, but according to stories passed down from mouth to mouth, there appears to have been ‘nujöng’ in Korea before the 5th century. However, the earliest record of a nujöng appears to be in Samguk Yusa. In 488, King Pich'ö, the 21st king of Silla, is said to have visited Ch'önnch'önjöng. After that nujöng appears frequently in records.

Nujöngs are generally built in places in scenic locations. In Korea they are found often where you can see the body of water with your back to the mountains or near the beach. This is probably because they are surrounded by stunning scenery. In particular, Gyeongsang Province has overwhelmingly more nujöng than other regions. The number of nujöng still in place today varies depending on the survey results.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re are nearly 300 nujöng in Gyeongsangbuk Province and Gyeongsangnam Province. According to this survey, as Seoul and Gyönggi Province have less than 100 remaining, it can be said that Gyeongsang Province still has a lot of nujöng left.

In Gyeongsang Province, there are 21 in Kyöngju, 41 in Andong, 12 in Yöngil, and 22 in Yöngju, 16 in Ponghwa, 13 in Haman, 19 in Koch'ang, 14 in Hapch'on, and so on. It can be said that the beautiful scenery around the Nakdong River inspired the construction of nujöng.

On the other hand, if you turn to a book named “Chosönhwanyösunam” compiled in 1929, Gyeongsang Province has 1,295 wells, a tremendous

increase in number. Regardless of the research, the fact remains that Gyeongsang Province had the most number of nujongs in Korea.

Gyeongsang Province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apital of learned culture, represented by Toegye Yi-hwang and Nammyöng Cho Sik. In fact, it was also the region that saw a boom in nujöng building after the mid-15th century. The fact that Gyeongsang Province is a cultural capital also explains why there are so many nujöng in the region.

There are as many as 1,200 nujöng in Gyeongsang Province, and close to 300 at the lowest estimate. We can't cover them all in this lecture. That's why we're going to introduce you to some of the most widely known nugaks and chöngjas.

Let's start with Ch'oksokru in Chinju, Gyeongsangnam Province. Chinju, Gyeongsangnam Province, is not only a beautiful landscape. It was a key area responsible for defense against enemy invasion. Since it was a key part of the military defense, a castle was also located in the Chinju area, and that is Chinju Castle. Chinju Castle was built on a spot overlooking the Nam River. Choksökru was part of that castle. So it wasn't just a place to sit and enjoy the scenery. It was part of a fortress, a place to watch and defend against enemy invasion.

Choksökru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in 1241, during the Koryo Dynasty, by a man named Kim Chi-dae. Originally, it was an annex to a temple called Yongdusa, which is the Jinju governor, or Jinju mayor. A man named Kim Chi-dae, who served as a Chinju governor rebuilt the building attached to the temple. And it's been passed down to this day.

Of course, in the meantime, it burned down, collapsed, and was rebuilt and repaired dozens of times, more than 10 times. It was built to honor the memory of not only Ch'oksokru, but also the countless souls who perished in the Imjin War. Ch'angrolsa or Uiam, which is imbued with the traces of Non'gae, who is said to have jumped into the Nam River with a Japanese general to her demise. We also need to remember Uigisa, a space dedicated to the memory of Nong'gae.

Next, let's take a look at Yöngnamru in Miryang, Gyeongsangnam Province.

By the way, Yŏngnam-ru is the same as Ch'oksok-ru, So the debate about who was better and who was worse is still going on. However, it's worth mentioning that it's also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local pride. Miryang, where Yŏngnamru is located, is on the route of Yŏngnamdaero, which runs from Seoul to Busan. As such, it's no surprise that officials who were on their way on official business, not to mention the stunning scenery And intellectuals who came to rest in the beautiful scenery. Because of this, Yŏngnamru was not only a place for officials to stay overnight It was also a place of rest, and a place to create songs and poems that could be hummed over the beautiful scenery.

Yŏngnamru was built on the site of a temple called Yŏngnamsa. It is widely believed that Yŏngnamru got its name from this temple. In this way, just like Ch'oksokru, which began as an annex to a temple called Yongdusa. Yŏngnamru also started as an annex to a temple called Yŏngnamsa. In addition, although it no longer exists, Ch'oksokru did not only have a grand building in the center. It is believed that there were smaller annex nugaks on either side of it that supported the main nugak.

The same is true for Yŏngnamru, which still has some of its annex chŏngjas. Those buildings are Nungp'adang and Ch'imryudang. Not only that, but Yŏsugak, which connects Ch'imryudang and the center building Completes the stunning overall beauty of the structure. By the way, Yŏsugak is also called Ch'ungch'unggak because its shape is like a staircase If you look at the tiered staircase from the front it resembles a shape of the moon letter Wŏl, so it is also called Wolang.

This is the end of our introduction to the nugaks in Gyeongsangnam Province, so let's move on to Gyeongsangbuk Province. The first chŏngja to be introduced in Gyeongsangbuk Province is Ch'ongamjŏng. Chŏngamjŏng is located in an area called Yugok-ri in Bonghwa, Gyeongsangbuk Province. Chŏngamjŏng was built by a man named Kwŏn Pŏl. In 1526, when he was 49 years old, Kwŏn built his own residence and named it Ch'ungjae and Chŏngamjŏng, respectively. Among them, Chŏngamjŏng was built with water around the building and a bridge. You have to cross the bridge to go from Ch'ungjae to Chŏngamjŏng. It's an unusual structure, and one that adds to its

beauty. Of course, this beauty is also the main reason why Chŏngamjŏng is being introduced today.

The next chŏngja is Choganjŏng in Yech'ŏn, Gyeongsangbuk Province. Ch'oganjŏng is located in Chuklim-ri, Yongmun-myŏn. It inherited the spirit of Muijŏngsa composed by Zhu Xi.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should be called Ch'oganjŏngsa, so we will introduce it here.

Ch'oganjŏngsa is a chŏngja built by a man named Kwŏn Mun-hae. A stream flows in front of the chŏngja and is surrounded by a dense forest. The beauty of the scenery is remarkable. Completed in 1582, the chŏngja was built as a place for Kwŏn Mun-hae to retire to. Kwon built this chŏngja to relax and focus on his studies. Planted so that he could walk slowly with a cane and soak up his surroundings. Pine, bamboo, and other species of trees were planted to enjoy the surroundings. The way the chŏngja is now surrounded by trees gives us an idea of the landscape when it was first built.

The next nugak to be introduced is the Mandaru of Pyŏngsan Sŏwon in Andong, Gyeongsangbuk Province. There is Pyŏngsan Sŏwon in Pungsan-myŏn, Andong. Mandaru is the chŏngja that serves as the entrance and exit gate to Pyŏngsan Sŏwon. Therefore, while the two chŏngjas introduced earlier are places for personal relaxation and character cultivation, Mandaru was a place where scholars studying hard at the academy could rest or gather en masse.

When you go under Mandaru, there are two halls on the left and right. There are dormitories for scholars studying at the Pyŏngsan Sŏwon. Ipgyodang where classical canons were studied, and Chondŏksa, where ancestral rites were performed. P'ungak Sŏdang is the parent building of Pyŏngsan Sŏwon, which embraces Mandaru. Pungak Sŏdang was a school in the town of Pungsan. Ryu Sŏng-ryong thought that the area around Pungsan was too noisy. So Ryu moved it to its current location in 1572 and changed its name to Pyŏngsan Sŏwon.

This is the Yi Hwang school of thought. Ryu Sung-ryong, the pillar of the Youngnam Namin School, is widely known academically as a disciple of Yi

Hwang. We should also remember 'Chingbirok', which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using the failure of the Imjin War as a mirror and not repeating the mistake. Chingbirok, which was written in the hope of never repeating the mistakes of the Imjin War.

The last chŏngja to be introduced is Kyejŏng. Located in Usan-ri, Oesŏ-myŏn, Sangju-si, Gyeongsangbuk Province is the only chŏngja that is a thatched roof house. This means that the roof is covered with straw. The building is rustic, and so is the straw that makes up its roof. Chŏng Kyŏng-se, a disciple of Ryu Sŏng-ryong, who built Pyŏngsan Sŏwon is one of the pillars of the Namin lineage and the Youngnam Namin lineage. It seems that he built Kyejŏng in 1603 and initially named it Ch'ŏnggan or Ch'ŏngganjŏng. In addition to Kyejŏng which is a space for rest, he built various living spaces. The one most changed from its initial modest design by Chŏng is Taesallu.

Taesallu is a chŏngja quite literally. The small building was built by his grandfather's grandfather's grandfather, Chŏng Kyŏng-se. His grandson's grandson's grandson, Chŏng Chong-ro renovated it. By the way, Chŏng Chong-ro, the 6th generation grandson of Chŏng Kyŏng-se, is also a member of the Yŏngnam Namin school. As such, belonging to the T'oegye school of thought. It can be said that they inherited not only a building but also an intellectual legacy.



# 讲义

## 1차시 누정의 개념과 한국 누정의 역사

安世铉教授：大家好. 我们邀请了负责《韩国的楼亭和楼亭文化》讲座的教授们. 本讲座将以江原道、全罗道、庆尚道为中心, 了解韩国主要楼亭的历史和文化. 该讲座由3名教授一起进行, 首先我是负责江原地区楼亭讲座的国立江原大学安世铉. 两位教授, 请做一下自我介绍.

白晋宇教授：大家好, 我是负责湖南地区楼亭讲座的全州大学韩国语文化系的白晋宇.

安得镕教授：大家好. 我是负责岭南地区楼亭讲座的国立釜庆大学国语国文系的安得镕.

安世铉教授：今天来一起了解一下什么是楼亭以及楼亭有哪些类型, 以及韩国楼亭的历史.

白晋宇教授：那么先来看一下‘楼亭’这个用语的概念. 不管怎么说, 在我们当中安世铉教授是最专业的, 请您简单说明一下.

安世铉教授：楼亭中的‘楼’和‘亭’两个汉字, 分别指楼阁和亭子. 楼亭就是楼阁和亭子的合称.

安得镕教授：那么楼阁和亭子有什么不同呢？

安世铉教授：楼阁是较高阁楼形态的建筑物, 没有门或墙, 可以眺望四周. 楼阁是2层以上的建筑, 规模很大. 具有代表性的是位于景福宫的庆会楼, 地板被隔在地面高处, 没有门或墙, 以开放的形态眺望四周. 这种形态叫做楼阁. 楼阁一般由官厅建造和管理. 当有外国使臣到来或有官员从中央到地方时, 被用作一种休憩空间.

白晋宇教授：那么亭子呢？

安世铉教授：首先亭子是单层的, 规模比楼阁小. 亭子的规模没有几间, 屋顶也有茅草形态的. 亭子与和楼阁一样, 有很多四面开放的形态, 但其中也有为了供人们生活而筑墙安门、建造房间的情况. 有些地方还设置了所谓暖炕供暖设施, 供人们度过寒冷的冬天. 江原道江陵的海云亭或全罗道潭阳的息影亭等亭子可以被作为代表性例子. 亭子虽然也有官厅官方建造的情况, 但大多情况是私建的.

白晋宇教授：那么, 基本上可以看作是建筑主体与规模存在差异. 楼阁规模相对较大, 官厅作为公共建筑进行管理. 亭子的规模相对较小, 个人建造的情况较多. 可以这样认为吗？

安世铉教授：对的.

安得镕教授：被称为‘楼亭’的除了楼阁和亭子，还有很多建筑。关于这一点也请说明一下。

安世铉教授：是的。从朝鲜时代的代表性的人文地理志《新增东国輿地胜览》来看，其中有一个叫做‘楼亭’的类别。这里不仅有楼、亭，而且台、阁、堂、轩、斋都包含在楼亭中。因此，如果建筑物名称中包含台、阁、堂、轩、斋等，都可以看作是楼亭的一种。

安得镕教授：除了楼亭，还有‘楼院’或‘园林’等名称。这又是什么呢？

白晋宇教授：我来对这部分进行一下说明。楼院应该看作是楼亭的延伸概念。可以看作以楼亭为中心，添加各种建筑物和造景的规模较大的庭院。具有代表性的就是全罗北道南原的广寒楼院。以被称为广寒楼的代表性楼亭为中心，结合周边美丽的自然环境和人工建造的湖泊、小桥、建筑等营造而成的庭院。比起单一楼亭之美，以楼亭为中心，围绕楼亭形成和谐的景观，因此被称为楼院。

安世铉教授：那园林是什么？

白晋宇教授：可以说园林的概念也与楼院相似。但从加入了‘林’字可以看出，其给围绕楼亭的自然环境赋予了更大的意义。全罗南道甬吉岛有尹善道建造的大庭院，其不称为尹善道楼院，而被称为尹善道园林，也属于这种情况。

白晋宇教授：那么在韩国从什么时候开始建造楼亭的呢？在韩国旅行的话，有看起来很久久的楼亭，也有看起来刚建好的楼亭。无论是史书还是文集里，似乎都有关于楼亭的记录。在《三国遗事》或《三国史记》中也留有这种记录吗？

安世铉教授：是的，没错。《三国遗事》和《三国史记》中都有关于楼亭的记录。最早的记录出现在《三国遗事》中，记载称488年新罗炤知王出行天泉亭。《三国史记》中有记载称，500年百济东城王在宫殿东侧建造了临流阁，在此设宴。而且还有636年百济武王在望海楼为众臣设宴的记录。

安得镕教授：那么可以认为三国时代主要以王室为中心建造楼亭，被用作国家正式设宴、举行宴会的场所。

安世铉教授：是的，没错。不管怎么说，建造这种建筑物需要投入大量的物力和人力，所以国家层面建造、管理楼亭。

白晋宇教授：如果说楼亭的历史始于三国时代，那么高丽时代当然会建造更多的楼亭。高丽时代不仅是王室，而是个人建造的楼亭也登场了吗？

安世铉教授：是的。基本上，王室和地方官厅等官方建造的情况较多。《高丽史》中有很多关于王室楼亭的记录，1073年文宗在平理驿建造了亭子，1106年睿宗在嘉昌楼与臣子们一起作

诗射箭。另外，据记载，1157年毅宗拆除了宫殿周边的50多间民宅，建造了太平亭等多座楼亭，招致百姓怨声载道。

安得镕教授：高丽时期，地方官厅在迎接客人的客馆也建造了很多楼亭。江原道三陟的竹西楼以及庆尚道密阳的岭南楼就是代表性例子。在哪里可以看到个人建造的亭子的记录呢？

安世铉教授：在汇编从三国时代到朝鲜初期的诗文作品的《东文选》以及高丽时代文人的个人文集中，都可以找到其痕迹。据记载，高丽后期的文人牧隐李穡有朋友名叫金直之。金直之在自己家中建造了名为六益亭的亭子。像这样，在高丽后期，也开始出现文人个人建造的楼亭。

白晋宇教授：也就是说，本来王室或官厅出于公共目的建造楼亭，但随着时间的推移，个人建造楼亭的情况开始逐渐增加。这样看来，如果进入朝鲜时代，这一数字应该会更好。

安世铉教授：是的。朝鲜时代楼亭的数量开始急剧增加。因为毕竟士大夫们私人建造的楼亭增加了。

白晋宇教授：请问有可靠的文献记录吗？这次请安得镕教授回答一下。

安得镕教授：当然了。从朝鲜初期的1454年编纂的《世宗实录》的地理志来看，朝鲜初期全国共有50多座楼亭。但从过去80年左右的1530年编纂的《新增东国舆地胜览》来看，收录了全国800多座楼亭。随着时间流逝，从18世纪中期即朝鲜后期英祖时期编纂的《舆地图书》来看，记录了1000多处楼亭。而且19世纪末编纂的《邑志》中记载了全国共有1883处楼亭，由此可见其持续建造了大量楼亭。

白晋宇教授：您说到朝鲜时代楼亭急剧增多，不管怎么说，应该和朝鲜时代士大夫们的出处观不无关系。士大夫是士与大夫合二为一的用语，为官从政被称为大夫，辞官读书则被称为士。虽然入仕为官的‘大夫’没有太大关系，但留在故乡或隐居生活的‘士’无论如何都需要欣赏自然、进行学习空间。

安世铉教授：是的。回乡隐居的人们并不是悠闲度日。自己学习学问，或者培养住在周围的学生，进行这种学术活动。在风景优美之地建造楼亭，欣赏自然或享受风流。代表性的事例有庆尚道庆州的独乐堂溪亭或全罗道潭阳的俛仰亭。

安得镕教授：能再详细介绍一下独乐堂的溪亭和俛仰亭吗？

安世铉教授：首先从独乐堂开始介绍一下。李彦迪在40岁时被任命为中央官职-司谏院司谏，当时因反对重用垄断国政的金安老而被逐出官场，他回到故乡庆尚道庆州建造了独乐堂，专心治学。‘独乐’意为‘独自享乐’，包含了断绝纷繁的世俗之事，认真阅读圣贤文章，领悟道理，寻求独属于自己的快乐的含义。同一时期的宋纯也在1533年时暂时辞官，来到故乡潭阳。在潭阳建造俛仰亭，探讨学问，饮酒作诗，享受风流。

白晋宇教授：16世纪以后，随着士大夫文人辞去中央官职，隐居故乡，个人建造的亭子数量剧增。以这些亭子为中心，在享受自然的同时，进行学术交流，举行诗会，享受风流。进行这些活动的同时正式形成了韩国的楼亭文化。

安得镕教授：今天了解了楼亭的概念和种类，以及韩国楼亭的历史，请两位简要地整理一下。

安世铉教授：好的。楼亭是楼阁和亭子的合成词。楼阁是较高的阁楼形态的建筑，可以眺望四周。没有门或墙的形态。亭子是单层结构，规模比楼阁小，也有筑墙装门建成像房间一样的亭子。以楼亭为中心，添加多种建筑可以扩建成楼院和园林。

白晋宇教授：韩国楼亭的相关记录首次出现于三国时代，三国时代主要由王室主导建造楼亭，用于官方活动。高丽时代也同三国时代一样，高丽后期开始出现文人个人建造的亭子。朝鲜时代，从官位上退下来的士大夫文人开始回到故乡建造了许多亭子，因此楼亭的数量也大量增加。在楼亭欣赏山水、讨论学问的同时，举行诗会、享受风流，形成了以楼亭为中心的儒生文化。

安世铉教授：今天考察了楼亭的概念以及韩国楼亭的历史。

## 2차시 누정의 기능과 누정 문화

白晋宇教授、安得鎔教授、安世铉教授：大家好.

白晋宇教授：今天来一起了解一下楼亭的功能和韩国的楼亭文化. 楼亭是楼阁和亭子的合成词, 楼阁和亭子本来是以空间用途建造的建筑. 关于这一点, 请安世铉教授进行一下稍微详细的说明.

安世铉教授：好的, 我来说明一下. 楼亭本来源于城墙的望楼和驿站的亭子. 楼阁高筑于城墙之上, 用于观察城墙内外情况, 亭子作为驿站的附属建筑, 给旅客提供休息之所.

安得鎔教授：从‘楼’和‘亭’这两个汉字也可以确认这种用途. ‘楼’指的是较高的建筑, 所以具有监视的功能, ‘亭’具有‘停留’之意, 所以与短暂停留休息的功能相关.

安世铉教授：后来楼亭更多地被用作欣赏自然、进行休憩的空间. 而楼阁规模较大, 具有官方用途, 与之相反, 亭子规模相对较小, 具有私人用途.

安得鎔教授：所以楼阁可以说是王室或贵族游玩享受或举行诗会、饮酒作诗的空间, 举行诗会、具有格调的空间. 亭子是旅客进行休息与见面的场所.

白晋宇教授：那么可以说楼亭有多种功能. 希望您能特别讲一下作为文化空间具有怎样的意义. 因为建在风景优美的地方, 所以最重要的应该是欣赏自然的空间意义吧.

安世铉教授：是的. 楼亭大多倚靠美丽的山河建成. 而且位于可以一眼俯瞰周边景观的绝佳位置. 例如, 江原道春川有昭阳亭. 昭阳亭的后面是凤仪山, 前面是昭阳江. 因为这里契合‘乐山乐水’, 所以昭阳亭也被称为‘二乐楼’. 大部分来春川旅游的人都会登上昭阳亭, 一边欣赏山水一边休憩.

白晋宇教授：请安得鎔教授解释一下‘乐山乐水’.

安得鎔教授：好的. ‘乐山乐水’是享受山水的意思. 本来是孔子之语, ‘仁者乐山, 智者乐水’, 意为仁者喜爱山, 智者喜爱水. 也就是说, 要想成为优秀之人, 应该一边欣赏和感受自然之美, 一边领悟自然景物所蕴含的道理和意义.

白晋宇教授：那么可以说楼亭的第一功能是欣赏美丽的自然. 但风景优美之地, 当然不能缺少酒和诗.

安世铉教授：当然文人们聚在楼亭饮酒赋诗。像这样为了写诗而集结的聚会叫做诗会。以著名的楼亭为中心，同样出现了很多著名诗会。例如，江原道江陵有一座名为‘金兰亭’的亭子，这里定期举行名为‘金兰半月会’的诗会。金兰半月会的历史十分悠久，最初成立于1466年，其传统一直维持到日帝强占期为止。金兰亭的名字取自金兰之交，包含着诗会成员间应该具有深厚友谊的意义。诗会会员们聚集在金兰亭吟诗作赋，享受风流，增进友谊。

白晋宇教授：在留有很多美丽楼亭的全罗道潭阳地区也可以找到相似的事例。16世纪以息影亭为中心，众多文人进行了活动。他们被称为‘息影亭诗坛’，也是其中的一个例子。

安世铉教授：到此为止，讲到了在楼亭中欣赏自然，吟诗饮酒等以享乐为主的事情，但先人们在楼亭中不仅只是享乐吧。

白晋宇教授：当然了。楼亭的另一个功能就是学问的空间。楼亭中不仅有四面透明的结构，也有筑墙装门作为住所或书房使用的情况。在这种空间中，与熟人或弟子们一起讨论学问，共同学习。

安得镕教授：享乐固然很好，但说一下学术的话，楼亭中也有像庆尚道安东的晚对楼一样建在书院中的情况，书院是朝鲜时代的教育机构之一。因此，像晚对楼一样的位于书院的楼亭，在欣赏自然、进行休息的同时，探讨教育和学问。楼亭可以说是综合性文化空间。

白晋宇教授：楼亭的另一个功能可以说是文学作品的创作空间，与此相关的有楼亭题咏和楼亭记。以《新增东国舆地胜览》为代表的朝鲜时代地理志的‘楼亭’条目中同时收录了楼亭题咏和楼亭记。其原因正在于此。

安得镕教授：是的。登上楼亭欣赏自然，与朋友相聚共享风流时，以楼亭为素材创作了很多诗，这被称为楼亭题咏。诗大多是以次韵的形式创作的。次韵是指根据他人所作诗的韵来作诗，一个人作诗，其他人利用其诗中的韵字轮流作诗的方式。为了进行纪念，制成诗帖，还将诗作刻在木板上，挂在楼亭中。那么后人看到楼亭中悬挂的诗作，又接着继续次韵作诗。越是历史悠久、景观秀丽的楼亭，楼亭题咏也创作得越多，与庆尚道晋州的矗石楼相关的楼亭题咏从高丽后期到近代创作了1000多首。

安世铉教授：但楼亭题咏中也有像八景诗和四时词一样，以独特形式创作的作品。所谓‘八景诗’是将美景赋予8个题目，写成8首诗作的连作诗。江原道三陟有名为竹西楼的楼阁。竹西楼八景诗源于高丽时代，很多作品流传至今。四时词是描绘楼亭周边的春、夏、秋、冬四季风景的4首连作诗，江原道宁越有名为凭虚楼的楼阁。以凭虚楼



为对象也创作过多篇四时词.

白晋宇教授：那么应该一起了解一下楼亭题咏相关的次韵诗、八景诗和四时词. 似乎也应该了解一下散文作品. 关于楼亭的散文作品被称为楼亭记, 请您稍微讲解一下楼亭记.

安得镕教授：楼亭记意为附在楼亭上的记文, 一般记录楼亭的建造背景和过程, 描述楼亭周边的山水景物, 说明楼亭名称蕴含的意义. 通过楼亭记可以了解楼亭的位置、创建和重修的过程、楼亭建立的目的、楼亭的名字中包含的意义等.

白晋宇教授：历史悠久的楼亭中间进行多次修葺或严重破损后重建的情况很多, 这种情况下也创作了楼亭记吧.

安世铉教授：对的. 以位于江原道原州的浮萍阁为例进行一下说明. 名为浮萍阁的楼阁是1695年官员李明汉最先建造的, 现有留有1695年文人吴道一撰写的楼亭记, 此后1734年李雨臣也撰写了楼亭记. 1771年徐命善、1811年洪奭周创作的楼亭记流传至今. 浮萍阁已经坍塌, 现在只剩下遗址, 通过这些楼亭记可以了解浮萍阁最早何时建成. 如何倒塌, 如何重建.

白晋宇教授：这样的话, 可以说楼亭通过楼亭题咏和楼亭记更加被人们所熟知, 作为名胜地的价值也进一步得到提升. 以上一同考察了楼亭的功能和楼亭文化. 希望二位简单整理一下内容.

安世铉教授：楼亭基本上建在风景优美之地, 第一功能是被用作欣赏自然、进行休憩的空间. 这里也是文人聚在一起吟诗饮酒的风流空间. 另一方面, 这里也是教授学生、讨论学问的教育和研究空间, 可以说楼亭是综合性的文化空间.

安得镕教授：楼亭是综合性的文化空间, 也是楼亭题咏和楼亭记等文学作品的创作空间. 楼亭题咏是以楼亭为素材创作的诗, 登上楼亭的人们看到悬挂在楼亭的先人诗作后, 以次韵诗的形式进行创作. 楼亭记是附在楼亭上的记文, 记录楼亭的建立背景和过程, 描绘楼亭周边的美丽景色, 叙述楼亭名字包含的意义. 楼亭题咏和楼亭记使楼亭更加出名.

安世铉教授：今天了解了楼亭所具有的多种功能, 考察了韩国的楼亭文化.

善道建造的建筑物也具有很高的美学价值. 再加上创作文学、创作并欣赏音乐、欣赏舞蹈等艺术活动, 其价值得到了更高的评价. 尹善道正是在此地创作了多篇作品. 代表韩国时调的〈渔父四时词〉是最著名的作品.

今天大致考察了以湖南地区为中心的重要楼亭. 湖南地区保留了大量楼亭. 而且像很多楼亭一样, 还保留着多种多样的文学遗产. 特别是时调、歌辞等朝鲜时代的国文诗歌正是以楼亭为中心创作并享有的. 因此, 楼亭不是单纯为了享受自然而建造的建筑. 在文学史和文化史方面, 可以说是具有非常重要的功能和意义的文化空间.



### 3차시 관동팔경과 강원의 누정

白晋宇教授：大家好. 今天来了解一下韩国湖南地区的楼亭.

湖南意为湖水南边, 流经全罗北道和忠清南道边界的大江, 叫做锦江. 这正是将锦江比喻成大湖的说法. 按照现在行政区域包括全罗南道和全罗北道. 湖南地区自古以来就是韩国人主食大米产量最多的韩国最大的粮仓. 因为在山地地形占大部分的韩国, 此地具有十分罕见的广阔延绵的平原. 特别是以全罗北道的金堤市为中心, 延绵扶安郡、完州郡、井邑市、全州市、益山市的湖南平原是韩国最大的平原. 而且全罗南道以罗州为中心的罗州平原非常广阔.

除了广阔的土地之外, 生产大米时还有一种必须的东西. 就是水. 只有大江奔流, 才能给农业提供充足的水. 湖南地区流淌着锦江、万顷江、东津江、蟾津江、荣山江等几大河流. 湖南地区辽阔的平原和奔涌的大江相映成趣. 而韩国基本上是全国70%以上的国土都是山地的国家. 湖南地区也有智异山、德裕山、无等山、月出山、弥勒山等众多名山. 而且这些山也是众多江河起源的水源地.

因此, 在由山川、江河、平原构成的美丽地形上, 湖南地区建造了很多楼亭. 1530年编纂的《新增东国輿地胜览》中记载, 当时全国的楼亭共有885处, 其中庆尚道最多, 达263处, 其次是全罗道, 即湖南地区有170处. 截至2023年, 韩国文化遗产厅登记为文化遗产并进行管理的楼亭数量, 全罗南道达34处, 全罗北道达34处. 以湖南地区来看, 共有68处. 这与朝鲜中期的情况十分相似, 仅次于岭南地区的庆尚北道和庆尚南道. 当然, 像这样被登记为文化遗产的楼亭仅限定为朝鲜时代以前建造的、具有很高的文化遗产价值的建筑. 根据最近的调查, 湖南地区现存或通过文献记录可以确认其存在的楼亭数量多达3742处. 由此可以推测, 进入近代以后, 也持续出现了很多楼亭.

因此很难用一句话概括湖南地区楼亭的特色. 因为每座楼亭都有自己的历史和特色. 因此, 今天以湖南地区的楼亭中历史悠久、作为文化遗产价值较高的楼亭为中心, 了解一下湖南地区的楼亭.

最先看到的楼亭是位于全罗北道井邑市泰仁面的披香亭. 披香亭作为文化遗产的价值得到认可, 是被指定为韩国第289号宝物, 从文献记载来看, 是湖南地区历史最悠久的楼亭. 虽然因人而异, 但南原的广寒楼、全州的寒碧堂、淳昌的归来亭、群山的紫泉台以及现在介绍的泰仁的披香亭也被称为全罗北道的5大楼亭. 另外, 全国闻名的楼亭有晋州的矗石楼、密阳的岭南楼、平壤的浮碧楼和披香亭.

韩国的著名古典小说《春香传》中有列举全国风景优美之地的场面。

“说到京城的话，一出紫门就是七星菴、青莲菴、洗剑亭，虽然不知道平壤的练光亭，大同楼，牡丹峰，襄阳的洛山寺、报恩的俗离山、文藏台，安义的搜胜台、晋州的矗石楼、密阳的岭南楼怎么样，但来到全罗道泰仁的披香亭、抚州的寒风楼、全州的寒碧楼都很不错。”

据文献记载，披香亭是新罗时代崔致远担任太守时建造的。崔致远被称为韩国儒学始祖，也被称为汉文学始祖，地位非常高。不仅是儒学，在佛教和道教方面也造诣颇深。但具体是什么时候建造的还不确定。而现在的建筑是朝鲜中期1617年，由曾任该地县监的李志宏重建而成的。此后经过几次扩张和重修，以现在的形态保留了下来。

据说，原本亭子前面有两处莲池，叫做上莲池和下莲池。据说莲池开满了莲花，充满了莲花香气。因此，亭子得到了披香亭之名，即‘香气四溢的亭子’。披香亭虽然是崔致远建造的，但并不是为了个人目的而建造的。因为是崔致远在泰仁地区担任太守时建造的楼亭，所以可以说是以公共用途建造的楼亭。即相当于泰仁官衙附属的公共建筑。因此，可以说这是掌管地区的使道在官方活动中主要使用的建筑。

众所周知，披亭是规模非常大的亭子。正面5间，侧面4间，共20间规模，屋顶从侧面看是呈八字形八角屋顶。亭子的四周畅通，可以眺望四方，栏杆竖起短柱环绕四周。披香亭的建筑样式很好地展现了朝鲜中期木制建筑的建筑。因此，披香亭不仅楼亭本身很美丽，而且作为建筑具有很高的价值。

1617年由李志宏重建的披香亭，随着岁月流逝，逐渐扩大了规模。1661年至1664年之间，由担任县监的朴崇古进行了扩张重建，1716年担任县监的柳根进行了重建，成为了现在的规模。之后1855年担任县监的李承庆，在大规模修理披香亭时留下了记录。据该记录显示，工程动员工人2692名，技术人员577名，仅施工时间就达50天。进行了大规模的工程。此后，经过几次修缮，以现在的面貌保留至今。建造这座亭子的崔致远是深受后人推崇的人物。因此，在这座亭子里留有很多纪念崔致远行迹和业绩的诗文。这是后代经过披香亭的文人登上亭子，看着周围的景观，怀念建造亭子的人物崔致远而留下的。

接下来是位于全州的寒碧堂。在中国和韩国，存在着将多处美景合称为‘八景’的文化。寒碧堂从很久之前就是全州八处美景之一，即被称为‘全州八景’的建筑。因为名字中含有‘寒冷’的‘寒’字，所以与名字中同样有‘寒’字的南原‘广寒楼’、抚州‘寒风楼’一起

被称为湖南‘三寒’。这座亭子原本是朝鲜初期的崔霨回到故乡全州建造的建筑物。崔霨的儿子崔德之也曾在这里教授学生。该楼亭最初建成时，以建造亭子的崔霨的号‘月塘’为名，被称为‘月塘楼’。之后经过几次重修，改成了现在的‘寒碧堂’。现在的建筑是1828年重修而成的。

寒碧堂作为全州八景十分著名。寒碧堂位于全州东侧名为升岩山的小山脚下，下面流淌着全州川。位于笔直流淌的全州川急剧弯折的位置，此处溪水与岩石相撞，萦绕着美丽的水雾。因此，将水雾比喻为清新的烟雾而出现的说法就是‘寒碧堂的清新的烟雾’，即‘寒碧晴烟’。因其充分表现了全州八景之一的寒碧堂的景色而被人们使用。建在山水交融之地的寒碧堂很好地展现了亭子位于美丽自然之中的基本特征。

以上考察了湖南地区的代表性楼亭泰仁的披香亭和全州的寒碧堂。而湖南地区楼亭的特点之一是，不限于单独的楼亭建筑，还存在楼亭向更大的空间扩张的概念—楼院或园林。最具代表性的是以广寒楼为中心的南原广寒楼院、潭阳的潇洒园、莞岛郡甫吉岛的芙蓉洞园林。

一般楼亭是为享受周边美丽的自然景观而建造的单独建筑。因此，大多利用原本的自然建造而成。而楼院和园林可以说是在利用原来存在的自然环境的同时，以楼亭为中心，增加了各种建筑和人工造景的大规模空间。例如，广寒楼院是以广寒楼这一楼亭为中心，乌鹊桥、瀛洲阁、玩月亭等周边楼亭、人工湖和三处人工岛等和谐构成的大规模庭院。相当于广寒楼这一主角与众多配角相得益彰。潭阳的潇洒园也是如此。

潇洒园里有待凤台的草亭、光风阁、霁月堂等美丽的亭子，但这些亭子并不是全部。潇洒园是以亭子为中心，周围的花草树木、小溪、莲池、水碓、小桥、岩石、花鸟、瀑布等相互融合构成美景之地。潇洒园同样可以说是大规模的庭院。莞岛郡甫吉岛的芙蓉洞园林比广寒楼院和潇洒园的规模更大。所以被称为园林。芙蓉洞园林也是以名为洗然亭的亭子为中心，融合了20多处建筑物和各种形态的自然环境而形成的大规模庭院。相较于楼亭，因其赋予了楼亭的周围自然环境更大的意义，故称其为园林。

位于全罗北道南原的广寒楼院是韩国最有名的旅游景点之一。代表广寒楼院的楼亭广寒楼的建筑价值和文化价值得到了认可，现被指定为韩国宝物第281号。广寒楼院历史悠久。不仅广寒楼这一中心建筑十分著名，而且围绕这一楼亭建造的多处建筑和周边景观完美融合，因此一直备受人们喜爱。此外，广寒楼院中所建的建筑也反映了朝鲜时代人们的宇宙观。另外，因其为韩国古典文学的代表作品《春香传》的舞台也为人熟知。小说《春香传》中到处都出现了以广寒楼为代表的广寒楼院的多个场所，小说中登场的主要人物回忆起南原时，还提到了广寒楼院的各个地方。可以说是当时南原的地标。因为这样的历史，广寒楼院所在的南原市将广寒楼院视为地区代表性文化遗产，并

一直积极利用至今。所以人们一提到南原就会想起广寒楼，一提到广寒楼就会自然而然地想起南原。

位于全罗南道潭阳郡的潇洒园也是代表地区的象征性文化空间。潇洒园是朝鲜中期为了躲避因多次士祸混乱不堪的政治现实而隐居故乡的梁山甫创建的个人庭院。作为个人庭院，规模非常大，梁山甫在此建造了潇洒园，不仅享受了自然，还与当时湖南地区的众多文人学者共聚一堂讨论学问，吟诗作赋。据说，梁山甫非常珍视出自自己之手潇洒园。所以也给后代留下了遗言，让他们好好管理，其结果是直到今天也可以确认其美丽面貌。

潇洒园与韩国古典文学中的歌辞文学渊源颇深。因为潇洒园所在的潭阳郡诞生了众多歌辞文学作品。不仅是潇洒园，在位于潇洒园周边的环碧堂、松江亭、明玉轩、息影亭等楼亭中，朝鲜时代的文人享受自然并创作了歌曲。所谓歌曲就是歌辞。因此，全罗南道将潇洒园所在地区的行政区域名称改为‘歌辞文学面’。潇洒园位于无等山的尽头，山水融合的特别景色使朝鲜时代建造了许多美丽的楼亭。而且以楼亭为中心，诗文创作也得以蓬勃发展。

芙蓉洞园林位于全罗南道莞岛郡甫吉岛。南原不能缺少广寒楼院，甫吉岛也不能缺少芙蓉洞园林。芙蓉洞园林是朝鲜时代文人尹善道以个人力量建造的大规模庭院。这个园林之所以被称为尹善道园林的理由正在于此。尹善道在丙子胡乱后，对当时的政治现实感到失望，希望找个遥远之地隐居。在乘船去往济州岛的途中遇到风浪，偶然发现的地方就是甫吉岛的芙蓉洞。被芙蓉洞美景迷住的尹善道干脆在这里安家落户。并且开始一点一点地创造属于自己的空间。经过长时间的努力而建成的正是芙蓉洞园林。芙蓉洞园林是朝鲜时代最具代表性的民间园林。不仅甫吉岛的自然景观十分美丽，而且尹善道建造的建筑物也具有很高美学价值。再加上创作文学、创作并欣赏音乐、欣赏舞蹈等艺术活动，其价值得到了更高的评价。尹善道正是在此地创作了多篇作品。代表韩国时调的〈渔父四时词〉是最著名的作品。

今天大致考察了以湖南地区为中心的重要楼亭。湖南地区保留了大量楼亭。而且像很多楼亭一样，还保留着多种多样的文学遗产。特别是时调、歌辞等朝鲜时代的国文诗歌正是以楼亭为中心创作并享有的。因此，楼亭不是单纯为了享受自然而建造的建筑。在文学史和文化史方面，可以说是具有非常重要的功能和意义的文化空间。

## 4차시 호남의 누정 개관

安世铉教授：这是朝鲜后期学者李重焕所著的《择里志》。《择里志》是李重焕亲自考察全国各地，了解各地区的特点后执笔撰写的地理志。李重焕在《择里志》中关于江原道名胜，特别提到了关东八景。因为江原道自古以来就被称为‘关东八景’，有很多风景优美的名胜。关东指的是江原道，八景指的是八处秀丽的景色。李重焕如下介绍了以关东八景为代表的江原道名胜。

“江原道多楼台亭观之胜。在歙谷侍中台，在通川则为丛石亭，在高城则为三日浦，在杆城则为清涧亭，在襄阳则为青草湖，在江陵则为镜浦台，在三陟则为竹西楼，在蔚珍则为望洋亭，人所谓‘关东八景’。九郡之西为金刚、雪岳、头陀、太白等山，山海之间多奇胜处。”

李重焕描述道江原道位于山海之间，有很多美景。江原道以大关岭为基准，西侧被称为岭西地区，东侧被称为岭东地区。岭东地区西侧耸立着太白山脉，东侧延绵至东海。金刚山、雪岳山、头陀山、太白山等是构成太白山脉的主要山峰。关东八景位于岭东地区，即太白山脉和东海之间。但从关东八景来看，歙谷的侍中台、杆城的清涧亭、江陵的镜浦台、三陟的竹西楼、蔚珍的望洋亭等大部分都是楼台和亭子。由此可见，楼台在江原道的名胜地中地位超然。

这是在地图上标注的关东八景。李重焕将歙谷的侍中台和襄阳青草湖放入了关东八景之中。但一般来说，在关东八景中，以平海的月松亭代替侍中台，以襄阳的洛山寺代替青草湖。蔚珍的望洋亭和平海的月松亭在行政区域上属于庆尚北道。而在朝鲜时代，蔚珍和平海是属于江原道的城邑。通过地图可以再次确认，从通川的丛石亭到平海的月松亭，关东八景大部分为楼亭，并且全部位于江原道东海岸。

高丽后期文人李谷游览金刚山和关东八景，并撰写题为《东游记》的游记，使关东八景成为士大夫们游览江原道的路线。这种倾向一直延续至朝鲜时代。朝鲜前期文人洪仁祐于1553年游览了金刚山和江原道，并撰写了题为《关东目录》的纪行文。《关东目录》详细记录了江原道旅行时每日的天气、旅程和趣事等。

来看一下洪仁祐的旅行路线。从首尔出发，经过江原道岭西地区北部的金化和铁原，游览了金刚山。然后前往金刚山东侧的东海岸地区，从通川南下游览了江陵。但没



有前往位于江陵更南边的三陟和蔚珍, 而是经过平昌、酒泉、原州等江原道岭西地区回到了首尔.

洪仁祐的《关东日记》由朝鲜代表学者退溪李滉撰写序文, 栗谷李珣撰写跋文, 是一篇著名的纪行文. 朝鲜时代洪仁祐的《关东日记》是游览以关东八景为代表的江原道名胜的一本指南手册. 朝鲜时代的众多文人游览了关东八景, 用汉文作诗、撰写纪行文, 创作了很多优秀的文学作品.

朝鲜时代, 汉文作为官方语言, 士大夫文人也主要以汉文进行文学活动. 而退溪李滉以韩文创作了时调, 松江郑澈也用韩文创作了歌辞作品. 朝鲜时代的文人主要使用从中国传入的汉文. 但因为汉文与韩语的语言体系不同, 所以在创作文学作品时, 仅使用汉文会感到局限性. 关于关东八景, 以韩文创作的文学作品中最有名的是朝鲜宣祖时期的文人松江郑澈创作的《关东别曲》.

《关东别曲》是1580年郑澈45岁时赴任江原道观察使创作的歌辞作品. 郑澈游览了金刚山和关东八景, 描绘了所看到的美景, 抒发了心中的感受. 郑澈的《关东别曲》在朝鲜时代也被作为歌曲进行演唱, 受到了很多人的喜爱.

关东八景在朝鲜时代不仅是文学作品的素材, 也是绘画作品的素材. 朝鲜后期著名画家谦斋郑澈、檀园金弘道、豹菴姜世晃亲自游览了金刚山和关东八景一带, 分别留下了画帖. 谦斋郑澈留下了《关东名胜帖》, 檀园金弘道留下了《金刚四郡帖》. 姜世晃留下了名为《枫岳壮游帖》的画帖.

现在所看到的是郑澈的《关东名胜帖》中描绘的三陟竹西楼. 矗立在高耸的岩石悬崖上的竹西楼非常雄伟. 特别因为关东八景是八处名胜, 所以朝鲜后期多将其制为八扇屏风. 将关东八景的每一处名画在一扇上, 共制成八扇. 没有亲自去过关东八景的人们也可以在欣赏画帖或八扇屏的同时, 间接地欣赏关东八景的美景.

被列入关东八景的江原道的楼亭都位于岭东地区. 而江原道岭西地区也有很多历史悠久、充满魅力的楼亭. 来看几处江原道岭西地区的著名楼亭.

春川的昭阳亭、原州的浮萍阁、洪川的泛波亭、麟蹄的合江亭、宁越的凭虚楼和金刚亭、铁原的孤石亭可谓岭西地区的代表性楼亭. 高城的清涧亭、江陵的镜浦台、三陟的竹西楼等, 岭东地区的楼亭西临太白山脉, 东靠东海, 即岭东地区的楼亭山海兼得. 岭西地区没有大海, 取而代之的是河流. 所以岭西地区的楼亭背靠山势, 前俯江河, 可以同时欣赏到山川和河流. 那么朝鲜时代江原道有多少楼亭呢?

从朝鲜时代编纂的地理志, 大致可以了解江原道楼亭的状况. 《新增东国輿地胜览》和《輿地图书》是分别代表朝鲜前期和朝鲜后期的全国规模的地理志. 《关东志》

是朝鲜后期以江原道为对象的地理志。这3种地理志记录了朝鲜时代分别位于江原道26个郡的各个楼亭。《江原道志》是日帝强占期的1941年出版的，不是朝鲜时代出版的地理志。但《江原道志》继承了朝鲜时代的地理志传统，是了解朝鲜时代江原道楼亭的大致情况的重要资料。

朝鲜时代的地理志将江原道分为26个郡，以郡为单位记录‘楼亭’。而《江原道志》将‘楼亭’作为总类，记录了江原道所有郡的楼亭。即在《江原道志》的‘楼亭’条目中，从春川的昭阳亭开始，江原道26个郡的全部楼亭都按顺序被记录了下来。《江原道志》中记载的江原道楼亭情况整理成表格如图所示。

蔚珍和平海现在不属于江原道，而是属于庆尚北道。但蔚珍和平海在朝鲜时代属于江原道，在1960年以后被划归庆尚北道。是最近的事。因此，也将蔚珍和平海的楼亭囊括于江原道楼亭中，进行了统计。《江原道志》中记载的江原道楼亭共有235处。《江原道志》不仅记录直到出版的1941年为止遗留下来的楼亭，还记载了已经消失、只剩下遗址的楼亭。江陵、三陟、襄阳、高城、蔚珍等岭东地区的楼亭有140多处，占全体的60%左右。在26个郡中，位于岭东地区的只有9个，但可以看出其楼亭数量远远多于岭西地区。

这首诗是朝鲜前期文人徐居正创作的《关东行》的一部分。题目‘关东行’意为‘关东地区歌曲’，‘关东地方’指的是‘江原道’。这是故友赴任江原道使时，表达送别之意而写的诗。徐居正吟咏道：“关东形胜天下少，风流往往皆儒仙。”正如徐居正所说，游览江原道名胜的是儒仙，也就是说，儒学者成了神仙。朝鲜时代游览以江原道楼亭为代表的名胜，暂时忘却繁杂的世界，仿佛进入仙境一样，得到了自由与休息。

下面是洪仁祐撰写的《关东日录》的一部分。

“沙白海碧，清兴难收。余忽下马投沙上，转身而卧。若狂者焉，人或谓之狂。”

洪仁祐在去往江陵镜浦台的路上看到东海的白沙滩后兴奋不已。洪仁祐像疯子一般扑向白沙滩，尽情享乐。对于洪仁祐这种文雅的学者而言，江原道也是放下体统和世俗规范，尽情享受自由与兴致的空间。

正如之前所看到的，江原道楼亭众多。在江原道的众多楼亭中，我将与大家一同前往江陵的镜浦台、三陟的竹西楼、春川的昭阳亭进行旅行。考察这三座楼亭的历史和文化，希望大家也能像朝鲜时代的文人一样，暂时忘却复杂的事，享受成仙般的自由与兴致。

## 5차시 경상도 누정의 조감

安得鎔教授：本课时将鸟瞰(overview)庆尚道的楼亭。庆尚道也被称为岭南。岭南这个名称原本指的是鸡立岭或乌岭南侧的地区，所以按照现在的地名是庆尚北道的尚州和闻庆附近。而现在被扩展作为指代庆尚道，即庆尚北道和庆尚南道全境的名称使用。

虽然不确定，但根据从口口相传的故事中可以确认，5世纪之前的韩国也曾有楼亭。而最早的楼亭记录在《三国遗事》中，记载了488年新罗第21代王毗处王去往天泉亭的记录，之后楼亭的记录在文献中随处可见。

楼亭一般建在风景优美之地。在韩国，背山望水之地或海边附近有很多楼亭，可能是因为这些地方被美景所围绕。其中，庆尚道的楼亭比其他地区建得更多。虽然留存至今的楼亭数量根据调查结果有所差异，但据文化遗址总览显示，庆北和庆南保留了几乎300处楼亭。在此次调查中，首尔和京畿道留存的楼亭数量不到100处，因此可以说庆尚道留下很多楼亭。庆尚道中庆州21座、安东41座、迎日12座、永州22座、奉化16座、咸安13座、居昌19座、陕川14座等，可以说洛东江周边的美景是建造楼亭的主要原因之一。

另外，根据1929年编纂的《朝鲜环輿胜览》一书，庆尚道的楼亭有1295处，其数量大幅增加了。不管根据任何调查结果，韩国庆尚道建有最多楼亭的事实都不会改变。同时，从随时代改变的楼亭建筑趋势来看，从15世纪中期开始，建造楼亭的事例逐渐增加，到了16世纪后期，暴发式增长。也就是说，生活在故乡教授学生，在自然中修养身心的人们的增加，试图以楼亭为中心，引起自身精神共鸣的意图等，也是建造楼亭的另一个原因。

庆尚道是以退溪李滉和南冥曹植为代表的精神文化首都的地区。实际上，15世纪中期之后掀起楼亭建筑热潮的地区也是庆尚道的事实，也可以说明作为文化首都的庆尚道地区楼亭众多的原因。

最多超过1200多处，少说也近300处庆尚道楼亭，很难在本课时全部考察。因此，我想介绍一下最广为人知的楼阁和亭子。

晋州的矗石楼、密阳的岭南楼、平壤的浮碧楼通常被选为韩国的三大楼阁。恰巧三大楼阁中有2座在庆尚道。所以不得不介绍一下矗石楼和岭南楼。

庆尚北道奉化的青岩亭、庆尚北道醴泉的草涧亭、庆尚北道安东屏山书院的晚对楼、庆尚北道尚州的溪亭同样是风景、建筑美感及象征意义等方面不可或缺的楼阁



和亭子.

首先来看一下位于庆尚南道晋州的矗石楼. 庆尚南道晋州不仅风景优美, 而且还是应对敌人入侵、负责防御的核心地区. 作为军事防御的核心, 晋州地区也有城(castle), 这就是晋州城. 晋州城位于俯瞰南江的位置上, 矗石楼就是晋州城的一部分. 因此, 这里不仅是欣赏和享受风景之地, 而且是观察和防御敌人入侵的要塞(fortress)的一部分.

据推测, 矗石楼建于高丽时代1241年, 是金之岱建造的. 原来是一座名为龙头寺寺庙的附属建筑, 据说担任晋州牧使, 即晋州市长的金之岱重建了寺庙的附属建筑, 并一直流传至今. 当然, 还要补充在这期间被火烧毁、倒塌、反复重建和修复十多次的故事. 同时, 不仅有矗石楼, 还有为纪念壬辰倭乱中无数灵魂而建造的彰烈祠和浸透着抱着日本将士一起跳入南江结束生命的论介的痕迹的义岩, 以及为追悼论介的空间-义妓祠.

接下来看一下位于庆尚南道密阳的岭南楼. 作为参考, 关于岭南楼和矗石楼的优劣之争至今仍然不断, 这表明两处都是象征各地区自尊心之地. 位于岭南楼所在的密阳位于从首尔到釜山的岭南大路经过的路上. 其风景出众, 是因官方公务上路的官员或被美景吸引而前来休息的知识分子往返停留的好地方. 因此, 岭南楼是官员们解决食宿问题的客舍, 即休息的空间, 而且是因为美景即兴创作诗歌的空间.

岭南楼建在名为岭南寺的寺庙旧址上, 因此以岭南楼之名广为人知. 这样看来, 与以龙头寺这一寺庙的附属建筑开始的矗石楼一样, 岭南楼也是以岭南寺这一寺庙的附属建筑开始的. 同时, 虽然没有保留至今, 但矗石楼也不仅中间有雄伟的建筑, 据推测, 两侧是支撑中间楼阁的附属楼阁. 岭南楼也是如此, 岭南楼依然保留了部分附属楼阁. 正是凌波堂和枕流堂. 不仅如此, 连接枕流堂和中间建筑的丽水阁也是完成卓越的建筑之美的建筑.

作为参考, 丽水阁的形状与楼层阶梯相同, 因此也被称为层层阁, 从正面看, 层层阶梯与月字相似, 因此也被称为‘月廊’. 关于庆尚南道楼阁的介绍到此结束, 接下来要去庆尚北道.

庆尚北道最先要介绍的亭子是青岩亭. 青岩亭位于庆尚北道奉化柳谷里. 青岩亭是权穰建造的建筑物, 1526年49岁的权穰建造了自己的住处, 并将住所分别命名为冲斋和青岩亭. 其中, 青岩亭的建筑四周环水, 架设桥梁, 从冲斋到青岩亭必须过桥. 可以说是难得一见而又增添美丽的构造. 当然, 这种美景也是这次介绍青岩亭的最大原因.

下面要介绍的亭子是庆尚北道醴泉的草涧亭。在醴泉龙门面竹林里坐落着草涧亭。因为继承了朱熹所建的武夷精舍的精神，所以也有不少人认为应该称其为‘草涧精舍’，在这里介绍一下。草涧精舍是权文海建造的亭子。亭子前面流淌着溪水，建筑物被茂密的树林包围，风景美不胜收。这座亭子于1582年竣工，是权文海隐退后，为专心治学、安心休息而建造的亭子。他拄着拐杖慢慢行走，为了享受周边环境而种下的松树和竹子等各种树木环绕着现在的草涧亭，由此可以推测出起初建造时的风景。

接下来要介绍的楼阁是庆尚北道安市市屏山书院的晚对楼。安市市丰山面坐落着屏山书院，发挥出入屏山书院的出入门作用的楼阁就是晚对楼。之前介绍的两座亭子是供个人休息或修养人格的场所，而晚对楼是供在书院努力学习的学者们进行休息或聚集一堂的大讲堂。晚对楼下方的左右两侧有在屏山书院进行学习的学者们的宿舍，还有学习经典的立教堂、进行祭祀的场所-尊德祠。拥有晚对楼的屏山书院的前身是丰岳书堂。丰岳书堂是位于丰山邑内的书堂，柳成龙认为丰山周边非常嘈杂，于是柳成龙在1572年将其迁至现在的位置，并更名为屏山书院。岭南南人学脉，即李滉学派。作为岭南南人学脉的中心轴的柳成龙是李滉的弟子，虽然其学术方面广为人知，但也应该铭记其以壬辰倭乱中的失败为鉴，以不再重蹈覆辙为宗旨而撰写的《惩毖录》。

最后要介绍的亭子是溪亭。位于庆尚北道尚州市外西面牛山里的溪亭是唯一以茅草屋形态流传至今的亭子。即以茅草覆盖屋顶。可以说建筑也很朴素，建筑屋顶的稻草也是那样。作为建造屏山书院的柳成龙的弟子、承担岭南南人学脉轴心的郑经世于1603年建造了溪亭，最初将其命名为‘清涧亭’。

除了作为休息空间的溪亭之外，他还建造了多种多样的生活空间，与郑经世曾建造的朴素建筑相比变化较大的建筑可能是大山楼。大山楼顾名思义是楼阁，玄孙郑宗鲁修葺了祖父的祖父的祖父郑经世建造的小楼。作为参考，郑经世的第六代孙郑宗鲁也被评价为岭南南人学脉，即退溪学派的骨干，可以说他们不仅继承了建筑，还继承了精神遗产。